

건국의 과거와 미래 그 찬란한 빛



표지집자(表紙集子)

『동국정운 東國正韻』

조선 세종 때 신숙주(申叔舟)·박팽년(朴彭年) 등의 왕명으로 편찬하여, 1448년에 간행한 6권 6책의 활자본이다. 한자음을 우리음으로 표기한 최초의 운서로 높이 평가된다. 훈민정음을 만든 뒤, 이 표기체제에 따른 운서가 필요하였고, 우리의 한자음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편찬한 책이다.

현재 건국대학교 박물관에 전질을 소장하고 있으며, 국보142호로 지정되었다.

발간사

참된 복지문화국가의 건설을 촉진하고 역사발전을 주도할 인재의 양성이라는 숭고한 건학정신 아래 상허(常虛) 유석창(劉錫昶) 박사가 설립한 우리 대학은 올해로 '창학 85주년'과 '개교 70주년'을 맞았습니다. 1946년 개교 이래로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시련과 역경도 적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 뜻을 모아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역사의 드높은 분수령 위에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섰으며, 그간 이룩한 성과는 참으로 빛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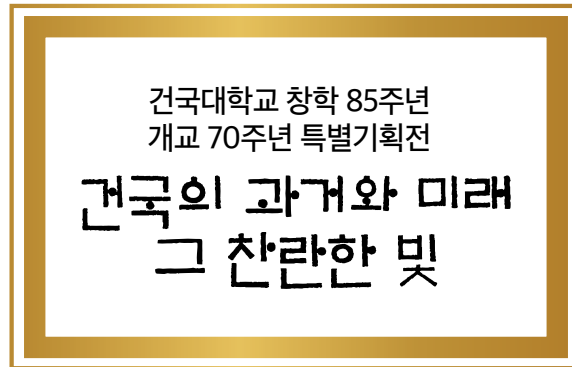
우리 대학은 이를 기념하여 학교 발전의 숨결이 담긴 특별한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유석창박사가 뿌린 진리탐구의 씨앗, 건국의숙으로 시작하여 조선정치학관, 조선정치대학관을 거쳐, 정치대학 그리고 건국대학교로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70년간의 숨결과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자 했습니다. 또한 입학으로 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때론 치열했지만 추억과 낭만이 가득했던 학생들의 다양한 이야기, 캠퍼스 풍경의 이모저모를 유물과 사진, 영상 등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스스로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갖춘 건국인이 걸어 온 70년을 살펴보고, “항상 조국의 건국을 생각하고 민족의 번영을 위해 마음을 비운다(常念建國 虛心爲族)”라는 설립자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학교에 대한 애정을 더욱 더 돈독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시를 기획하고 준비하신 박물관 직원들과 전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수고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16년 5월

건국대학교 총장 송 희 영



목 차

● 발간사	3
I 상허선생, 진리탐구의 씨앗을 뿌리다	
● 한 사람의 소원 만인의 유산 성(誠)·신(信)·의(義)여 영원하라.	8
● 무지와 가난에 찌든 동포들의 신음을 듣다.	14
● 황무지에 뿌린 민족교육의 씨앗	20
II 건국, 민족사학의 뿌리를 내리다	
● 포탄보다 뜨거운 교육일념, 정치대학	26
● 장안벌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다.	38
● 종합대학 건국대학교로 거듭나다.	43
● 정비에 박차를 가한 1960-70년대.	51
● 1980-90년대, 도약과 비상의 발판을 마련하다.	70
● 2000년대 이후, 조화로운 캠퍼스를 꿈꾸다.	83

Ⅲ 입학에서 졸업까지, 건국인의 라이프

● 입학의 기쁨과 환호, 짧고 강렬하게!	92
● 미끄러지기는 쉽고 오르는 어려운, 대학수업	99
● 달마가 '동방'으로 가는 까닭?	104
● 낭만과 도전, 대학인의 열정과 끼를 기록하다.	108
● 건대인의 자랑, 건국대의 영광!	111
● 축제의 깃발, 북적이는 캠퍼스	116
● 장안벌의 함성, 전세계를 누비다.	121
● 졸업, 또 하나의 우문현답(愚問賢答)을 찾아서	128
● 건물 자체가 문화재, 박물관	134
● 연표로 보는 건국의 역사	145



I

상허선생,
진리탐구의
씨앗을 뿌리다

한 사람의 소원 만인의 유산 성(誠)·신(信)·의(義)여 영원하라

A Wish of a Man, Legacy of All People, Sincerity, Fidelity, and Righteousness Fore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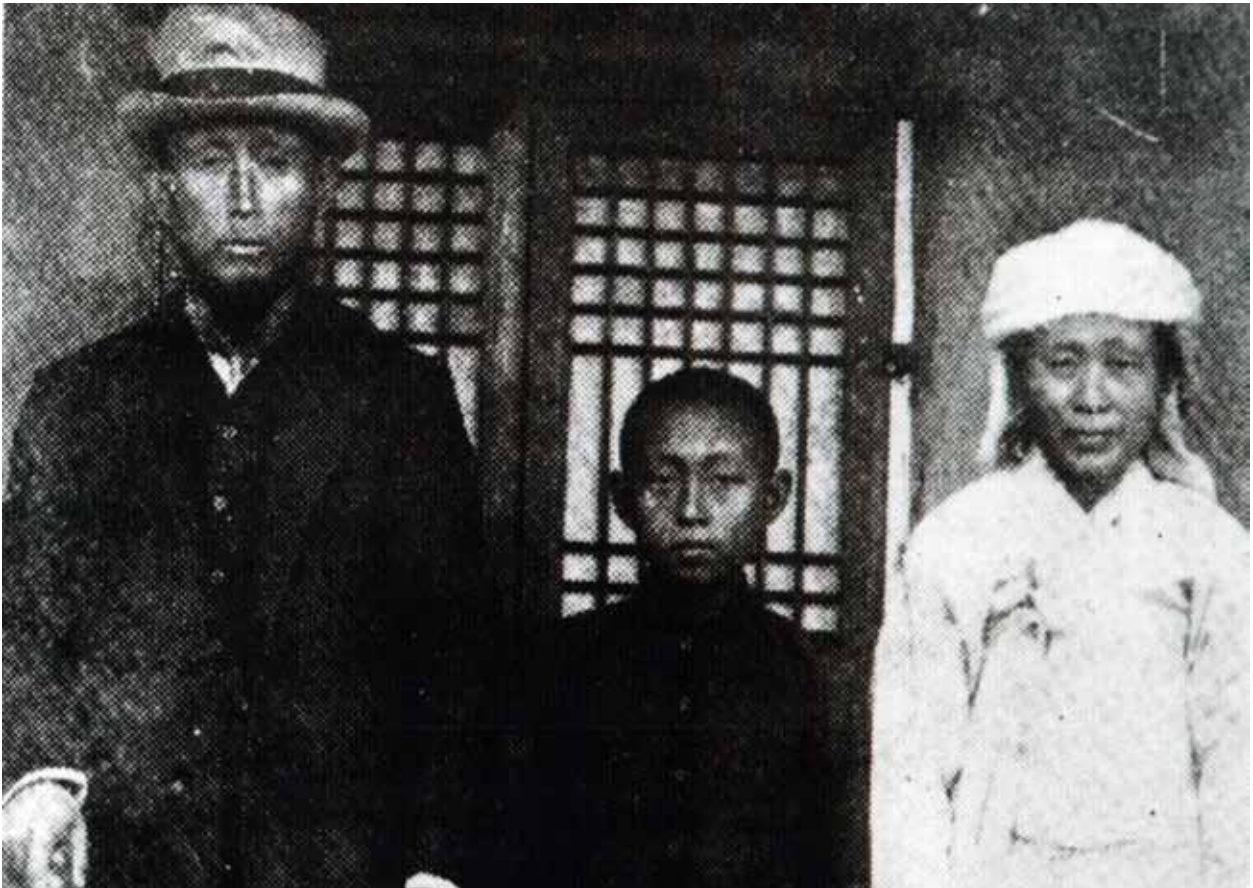
건국대학교 설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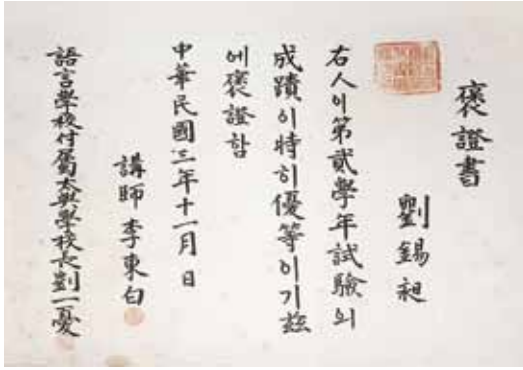
상허 유석창 常虛 劉錫昶

1900.2.17.~1972.1.1

유석창 박사는 빼앗긴 조국을 되찾아 복지문화국가를 만들려고 큰 뜻을 품고, 자신의 의지를 실천에 옮긴 참 지식인이다. 조국을 되찾기 위해 싸운 아버지를 따라 만주 벌판에서 조국애와 민중사랑을 키웠고, 이는 그의 삶을 바꿔 놓았다. 평생을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과 민중 구제를 위한 의료사업, 농촌부흥운동에 헌신했던 유석창 박사의 삶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진정한 의미의 애국이 무엇인지 오늘날까지도 뚜렷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 아버지 유승균 선생, 어머니 홍숙경 여사와 13살의 유석창 1912





▲ 태흥학교 포증서 太興學校 褒證書 1915

아버지를 따라 중국 동북지방(만주)을 간 이후 태흥학교 재학 시절에 수여받은 우등상장



▲ 관화학교 품행포증서 官話學校 品行褒證書 1915

관화학교 일반과 재학시절에 받은 선행 상장



▲ 관화학교 포증서 官話學校 褒證書 1916



▲ 관화학교 졸업증서 官話學校 卒業證書 1917

▼ 조선학생기독교청년연합회 전도단들과 함께한 유석창박사(첫째줄 왼쪽 첫번째) 1921





▲ 경성의학전문학교 재학시절 학우들과 함께 1925
(앞줄 왼편 세번째)



▲ 경신학교 포증서 敬新學校 褒證書 1921

만주에서 서울로 돌아와서 다닌 학교로 재학 시절 수여받은 우등상장



▲ 경신학교 졸업증서 敬新學校 卒業證書 1923



▲ 경성기독교청년학생구락부 시절의 유석창박사(앞줄 가운데) 1928



◀ 진급증서 進級證書 1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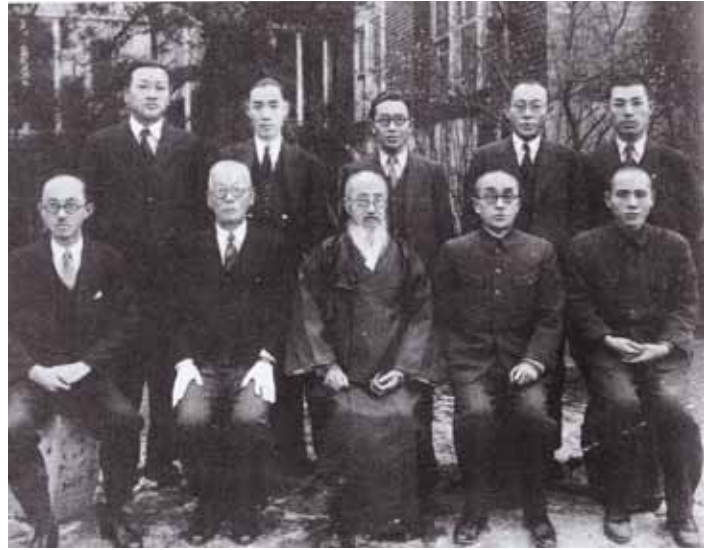
경신학교 고등보통과 4학년 진급증서

▼ 서울로 상경하는 유석창박사를 위해 함북 성진의 제동병원에서 송별(送別)하는 기념사진(왼쪽에서 여섯번째) 1930





▲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증서
京城醫學專門學校 卒業證書 1928



▲ 조선과학협회 창설을 기념하여 회원들과 함께한 유석창박사 1940
(뒷줄 오른쪽 두번째)



▲ 의사면허증 醫師免許證 1952



▲ 해방직후 정계요인들과 찍은 모습 (네번째줄 왼쪽 첫번째) 1945

▼ 유석창 박사가 경성의학전문학교 동문들과 찍은 단체사진 1940년대





▲ 유석창박사의 유품들(필기도구, 안경, 시계, 구두, 지갑) 1960년대~1970년대초

구두 한 켤레를 10년이상 신을 정도로 검소하였다.
구두는 그의 청빈한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유품이다.

▼ 가족과 남산 팔각정 앞에서 1960년대



▼ 피난시절 수원에서 가족 및 친척들과 함께 한 기념사진 1950년대

중앙에 유석창박사 왼쪽에 형 유목, 형수 박대순, 그 오른쪽에 차남 승운, 부인 김계옥여사, 처남 김세행, 유박사 앞이 장남 일운





▲부채



▲제1회 축우제에 참석하여 연설하고 있는 유석창 박사 1964



▲담배, 가스라이터



▲경기도농촌자원지도자훈련소 제1회 수료를 기념하여 1964
(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라디오



▲유석창박사의 칠순을 기념하는 고회 축하연회 1970



▲ 공의통지서 公醫通知書 1928

함경남도 장진에서 공의로 배치될 때 받은 통지서



▲ 공의임명장 公醫任命狀 1928

함경남도 장진의 공의임명장으로 월 수당 80원이었다



▲ 공의 수당지급증서 公醫手當支給證書 1928

장진공립보통학교 시절 공의 수당지급증서로 연 수당 10원이었다.



▲ 주사기, 주사바늘 1960년대



▲ 의료약품

◇ 종로중앙실비진료원 연소



▶ 사회영 중앙실비진료원 화재기사 동아일보 1932.7.15

1932년 7월14일 오후 2시 10분 종로 2가 68번지에 있던 사회영중앙실비진료원에서 화재가 났다. 이후 경운동 천도교기념관에서 임시 진료를 하였다.



▲ 각종 의약품 및 의료기기

▼ 화재 후 이전한 사회영 중앙실비진료원(오른쪽 두번째 건물) 1932

1932년 7월 화재 후 제반 설비를 갖추어 종로2가 13번지 중앙전도관으로 이전하여 종전과 같이 진료를 하였다.



[서울시사편찬위원회 편, 『일제 침략 아래서의 서울』, 2001]

出衆하고 性格이仁慈하여公德心



醫師劉錫昶(錫昶)氏는元來人格이

無産者에活人佛

民衆醫院長 劉錫昶氏

이만흔關係로 端川에서 開業했을 때에도 一般患者에게 甚은便利를 주었고 京城에와어도 無産階級患者들을爲하여 社會의 後援을얻어 鎭路에다 民衆醫院을設立하고 無産者들에게 甚은 實費治療란 表榜 밑에서 無料治療도 만이하여 無産階級에在한 男女患者들 無數히 救濟하는 無産者들에게는 實로 活人佛이라고한다。



▲ 민중병원 연혁 및 정관 1931

사회영증양실비진료원(민중병원)의 연혁과 정관 등을 담은 문서

▲ 무산자(無産者)에 활인불(活人佛) 동아일보 1936년 4월 2일

유석창 박사가 종로에 민중병원을 설립하고 가난한 동포들에게 구료제민(救療濟民)이란 기치 아래 무료 치료를 많이 하였다. 무산계급에 속한 남녀환자를 무수히 구제하는 등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실로 '살아있는 부처'라 높이 평가되었다.



▶ 인천 월미도에서 민중병원 직원들과 찍은 사진 1939 (왼쪽에서 네번째)



▶ 사회영증양실비진료원 3주년 기념, 인천 월미도로 직원들과 함께 야유회간 모습 1934 (뒷줄 오른쪽 네번째)



▲ 민중병원 개원 10주년 기념, 유석창박사와 직원들과의 आयुही 1941



▲ 민중병원 개원 28주년을 기념하여 1960



▲ 민중병원 개원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참석한 유석창박사(앞줄 네번째) 1971



▲ 화양동으로 이전하여 개원한 민중병원 1960



▲ 민중병원 신축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식 1971



▲ 1980년대 민중병원



▲ 민중병원 창립 50주년기념식 1981



▲ 민중병원 창립 60주년 기념식 1991



▲ 민중병원 신축공사 기공식 2001



▶ 현재 건국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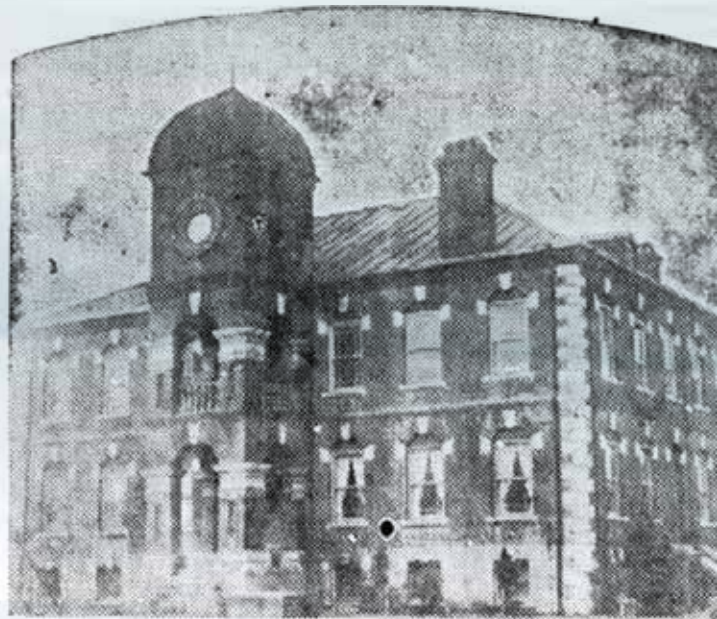
황무지에 뿌린 민족교육의 씨앗

Seed of National Education Sown in a Wasteland

유석창 박사는 1945년 10월 서울 종로구 낙원동 서북학회회관에서 '건국교육(建國義塾)'을 열었다. 이후 조선정치학관, 정치대학으로 발전시키는 일에 앞장선 교육 사상가이자 실천가였다. 1972년 서거(逝去) 이후 정부 국민훈장 모란장에 추서되고, 1985년 '한국의 대표적인 사학 설립자 13인'에 선정되는 등 많은 이들이 그의 공적을 기렸다. 또한 유가족들은 '상허기념사업회'를 만들어 장학사업을 펼쳤으며 1989년 '상허문화재단'으로 확대되어 상허사상 연구와 사회발전에 헌신한 인사 및 기관을 발굴하고 시상하는 등 그의 교육에 대한 심념과 의지는 꽃과 열매로 맺혀 오늘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배고픈 사람에게 한 마리의 물고기를 주면,
그 사람은 하루를 먹고 견딜 수 있다.
그러나 그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물고기를 잡아서 일생을
잘 살 수 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유산은 무엇인가?
그것은 결코 물질적인 재산이나 금전은 아닙니다.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주 독립의 정신과
능력을 키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교육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겪었던 개인이나 국가적인
불행과 고난을 겪게 하지 않는 것이
현 세대의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이며
명제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상허 선생 말씀 중에서-
(건국교육 설립 시기, 1945년)



최근 신희주를 맞이한 시내낙원(樂園町)협성실업학교(協成實業學校)의 교사는 신희주 박후식(朴興植)씨의 교세확충의 기도에 의하여 역사깊은 이 건물은 이제 개인의 손에 옮겨지게 되어 감사의 감회를 자아내고 있다.

협성의 앞날을 염두에 걸머지고 나선 동포 신이사장 박후식씨는 이와포함 다른정당한 장소에 이전할바를 결정, 지난十一月

인에게 넘어가던 이 건물의 지난날의 영광은 파산 혹은 三十五萬上

이 건물은 六百六十五萬으로 연와(煉瓦)二萬건을 건립 百八十

지금으로부터 三十五년 전 즉 명치三十八년경 당시 이 땅의 문화계발을 목표로 서북학회(西北學會)가 주최한 二년에 이 건물을 짓고 서북학회학교(西北學會學校)를 세워 유익정(柳益正)에 첫 소리를 올렸다. 그 뒤 함흥으로 학포는 해산이 되고 뒤편이 오성학교(五星學校)로 변경하였으나 대정七년에 여러가지 형편으로 폐교, 그 뒤 보성전문(普成專門)이 이집에 장간자리를 잡았었고 동十五년부터 협성학교가 다시 회수사용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파산이 함포가지 아니

波瀾卅五年의 協成校舍
오늘에 個人의 손에 넘어가고
協成은 郊外에 新校舍를 新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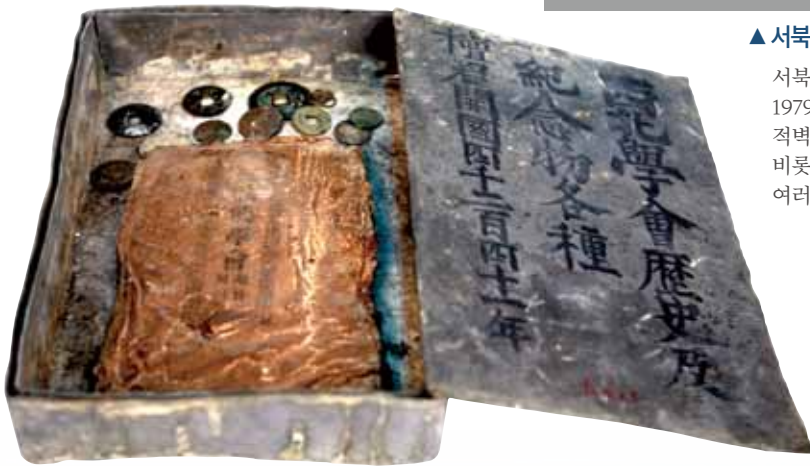
▲ 유석창박사의 서북학회회관 구입 동아일보 1939년 5월 16일

유석창 박사가 1939년 5월 12일 서북학회회관을 구입하였다. 이 건물은 1908년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항일민족운동단체인 '서북학회' 회관으로 세워졌다. 그 이후에 오성학교, 협성실업학교 등 교육기관의 교사로 사용되었다.



▲ 서북학회회관 초석 기념물 西北學會會館 礎石 記念物 1908

서북학회회관의 역사와 유래를 기념하기 위한 유물로 1979년 서북학회회관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적벽돌 초석 밑에서 발굴되었다. 서북학회 회칙을 비롯해 신문기사와 사진, 회원·임원의 명부 등 여러 문서들과 엽전, 동전이 함께 들어있었다.



▲ 낙원동의 서북학회회관



▲ 감사장 感謝狀 1961

건국대학교 총장 시절, 판사·검사 특별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어 법무부 장관에게 받은 감사장이다.



▲ 건국대학교 총장 신분증 1959
建國大學校 總長 身分證



▲ 서울시교육회 회원증 1962
教育會 會員證

▼ 사회장 거행모습 1972

유석창 박사의 서거(1972.1.1) 이후 1월 7일 학교에서 사회장(社會葬)으로 장례가 거행되었다.



▲ 농업협동조합초급대학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유석창박사 1963



▲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대회를 마치고 중앙청 1963
(현 경복궁) 앞으로 시가행진 중인 유석창 박사



▲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연을 마치고 관련 인사들과 1961
함께 한 유석창박사





▲ 상허 유석창 전기 常虛 劉錫昶 傳記 1981

유석창 박사의 인생철학과 일대기를 정리한 책자이다. 내용은 구료제민의 사명을 띠고, 육영건국의 대망을 안고, 복지농촌건설에의 헌신, 화려한 종언의 네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그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고, 이후 1985년 근대사학 100주년에 즈음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사학설립자 13인'으로 선정되었다.



◀ 공익포장 公益褒獎 1962



▲ 공익포장증 公益褒獎證 1962

유석창 박사의 공익포장증과 포장이다. 공익포장은 문화 발전이나 공익 사업에 앞장서 사회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 국민훈장 모란장 國民勳章 牧丹章 1972

유석창 박사가 돌아가신 이후에 수여된 것이다. 국민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공로한 공적을 표창하기 위해 수여하는 훈장으로, 모란장은 2등급에 해당된다.



▲ 상허사상연구발표회 안내 책자
常虛思想研究發表會 案内書 1985, 1988

1985년부터 상허기념사업회 주관하에 학생들이 상허사상연구논문 발표회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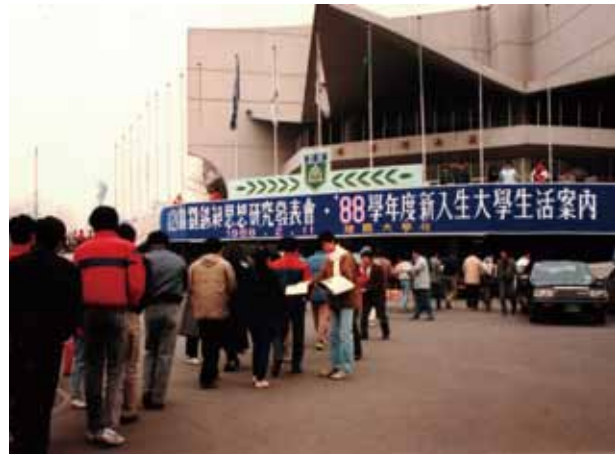


▲ 상허사상 常虛思想 1990년~2002년

상허문화재단에서 발간한 '상허 사상 학생 연구' 논문 모음집으로 유석창 박사의 업적과 일대기에 관한 논문집이다.



▲ 제2회 상허유석창 사상연구발표회 1988



▲ 상허문화재단, 상허대상 안내 책자
常虛文化財團, 常虛大賞 案内書 1989, 1994

1972년 상허기념사업회가 설립되어 학생들에 대한 장학 및 현창사업을 하다가 1989년 상허문화재단으로 확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상허대상은 상허사상의 연구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한 인사 및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 제1회 상허문화대상 시상식 1990



II

건국,
민족사학의
뿌리를 내리다

포탄보다 뜨거운 교육일념, 정치대학

Hearing Fellow Koreans Moaning in Ignorance and Poverty

조선정치대학관은 1949년 9월 9일, 4년제 정규대학인 '정치대학'으로 승격되었다. 정경학부에 정치과와 경제과 등 2개학과를 두었고, 정원은 제1부(주간과정)와 제2부(야간과정)를 합해 960명이었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부산으로 피난한 정치대학은 피난민 임시초등학교의 천막교사를 빌려 수업을 계속해 1952년 3월,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1952년 2월, 정치대학은 부산 구덕산 기슭 2천여평의 대지 위에 연건평 400평 규모(40평 교실 2개동, 70평 규모의 대강당, 40평 사무실, 50평 직원합숙소 및 3동의 기숙사)의 임시 교사를 짓고 부산캠퍼스 시대를 열었다. 만 2년 동안 피난생활과 함께 이어졌던 부산캠퍼스 시대는 1953년 8월 27일, 서울로 돌아와 종로2가의 민중병원 교사를 사용함으로써 그 막을 내렸다.



▲ 정치대학 교기 政治大學 校旗



▲ 조선정치학관 학생모집광고 현대일보 1947년 9월 25일

▼ 조선정치학관 야간부 신입생 입학 기념 1946





▶ 유석창박사가 조선정치학관
교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1948
(앞줄왼쪽 두번째)



▲ 조선정치학관 창립 2주년 1948



▲ 조선정치학관 개교 3주년 기념식에서 축하하는 백범 김구 선생 1949
(가운데 김구 선생, 그 오른쪽은 유석창 박사)



▲ 정치대학 설립 축하 기념식 1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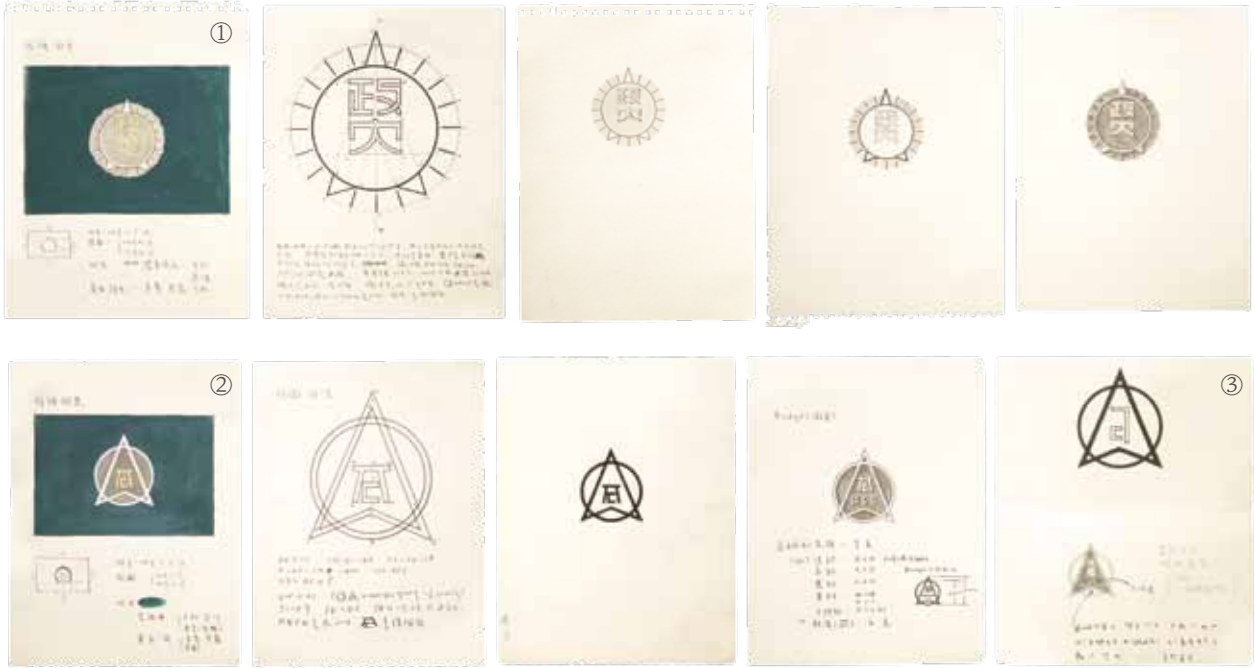
▲ 낙원동 캠퍼스 정문의 정치대학 설립 축하 기념문 1949



▲ 기념식에서 축하하는 초대학장 오하영 선생 1949
(왼쪽이 유석창박사, 오른쪽이 오하영 선생)



▲ 정치대학 웅변반의 전국웅변대회 입상기념 195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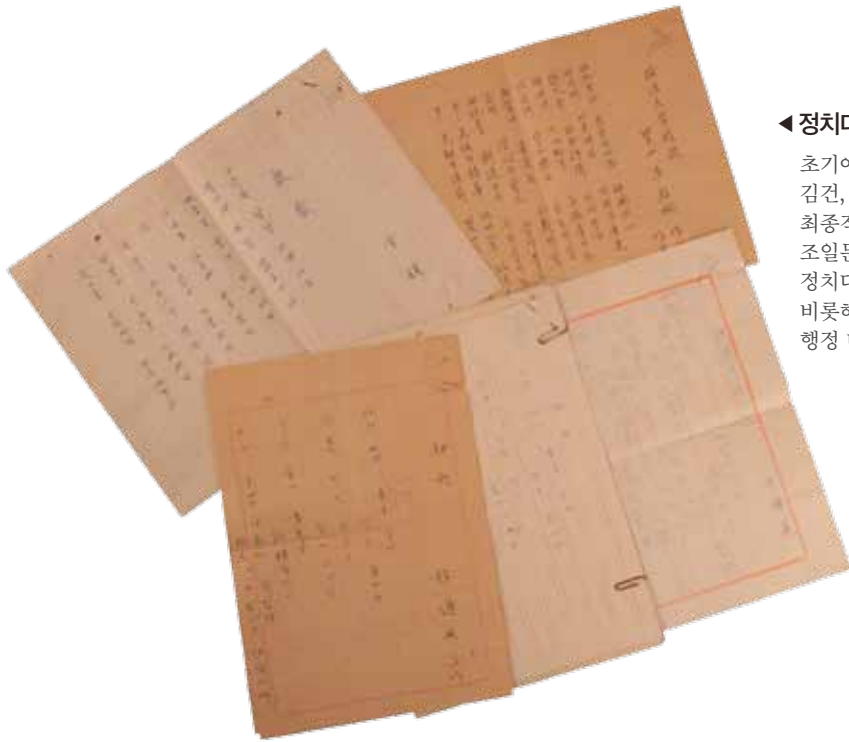
▲ 정치대학 휘장 및 고기 도안 政治大學 徽章 및 校旗圖案

- ① 정치대학의 휘장과 고기를 설계할 당시에 형태와 상징 의미 등을 고려하면서 만든 도안이다. 초기에 도안은 政大의 글자를 분다서 만들어졌다.
- ② 그 이후에 유석창 박사의 인생철학이자 건국대학교의 건학이념인 성誠·신信·의義에 따라 △-성의 시옷(ㅅ), ㄱ-신의 시옷(ㅅ), ○-의의 이응(ㅇ)으로 도형화하여 그 안에 정대의 ㅈㄷ을 표현하였다.
- ③ 건국대의 도안은 성誠·신信·의義 이념을 상징한 도형 안에 건대의 ㄱㄷ으로 바뀌어졌다.



▲ 배지 徽章

정치대학 및 건국대학교와 축대, 지사대, 경상대 등 각 단과대학의 배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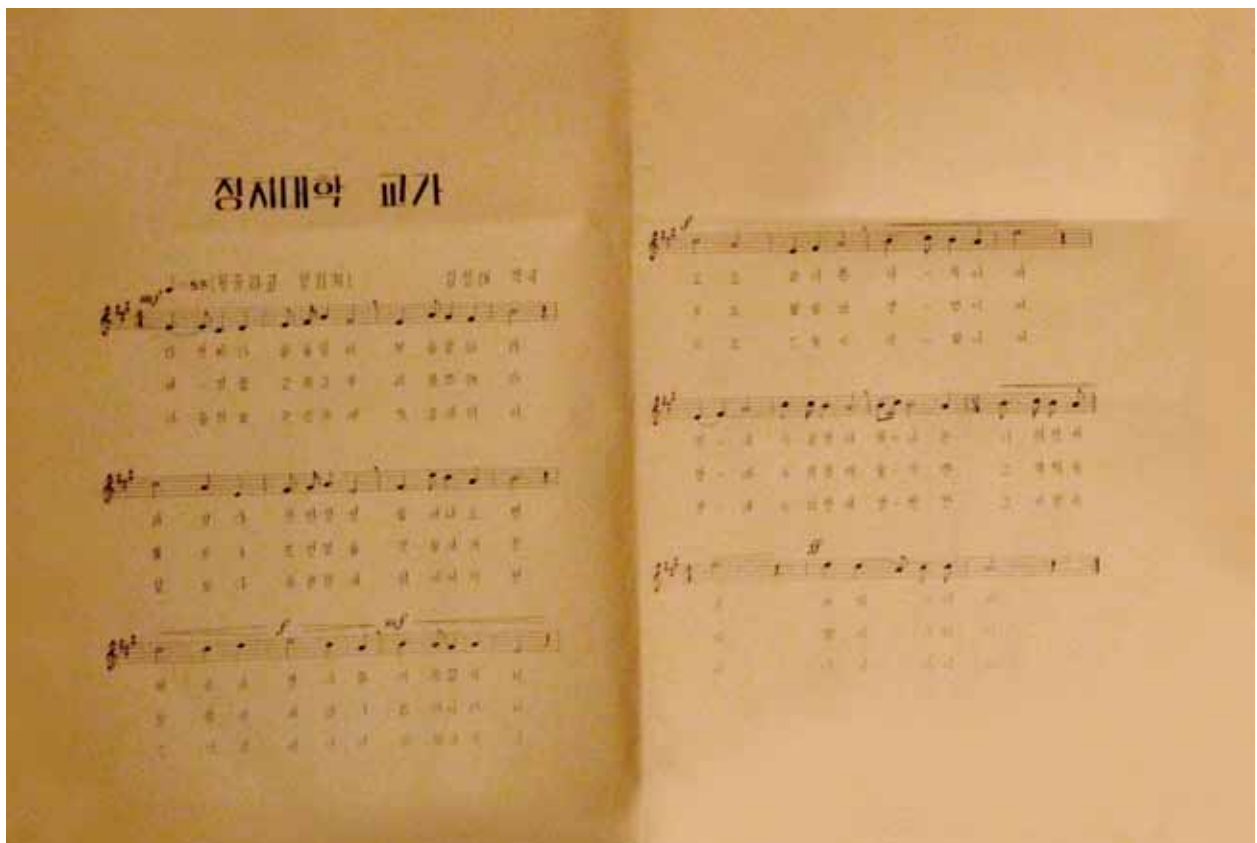


◀ 정치대학 교가 친필원고 政治大學 校歌 草稿

초기에 교가를 제정하기 위한 가사 모집에 김건, 이은상 등이 원고를 보냈다. 최종적으로 조일문[趙一文]선생의 가사가 선정되었다. 조일문선생은 함남 영흥(永興) 출생으로 1955년 정치대학 교수가 되었고, 1958년 정치대학 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해 1969년 건국대학교 법경대 학장, 1980년 총장, 1987년 행정 대학원장을 역임하였다.

▼ 정치대학 교가 원본 政治大學 校歌 原本

정치대학 설립 당시 제정된 교가의 원본으로 김성태선생이 작곡을 하고 조일문선생이 작사를 하였다.





▲ 개교 9주년 기념 야유회 1955



▲ 개교 11주년 기념 제1회 정치강연회 모습 1958



◀ 각종 신분증 및 학생증 身分證・學生證 1956~1961 성낙용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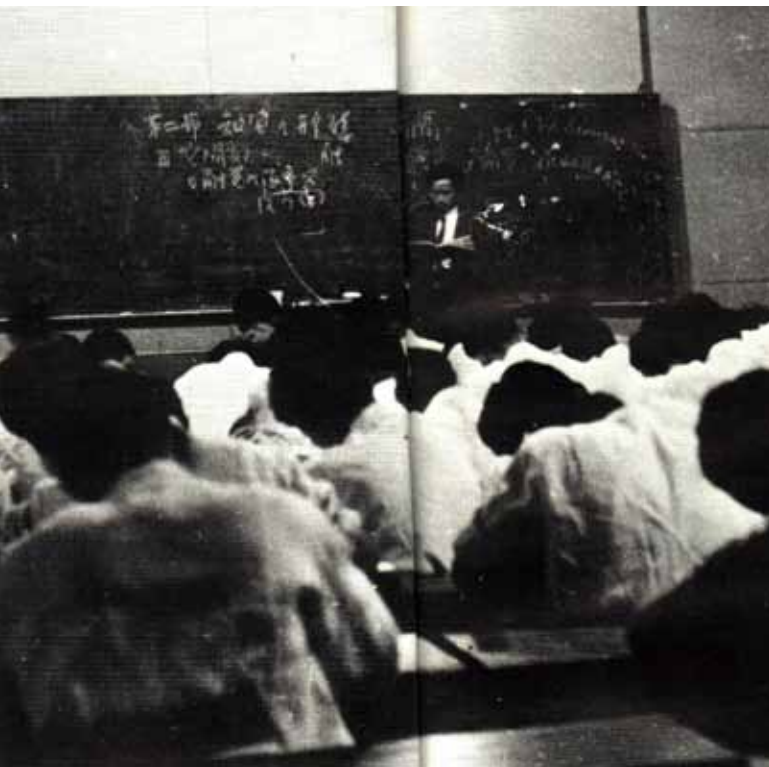
성낙용은 본교 졸업생으로 정치대 재학 시절 법학회 간사와 법학회장, 학도호국단 운영위원 등을 지냈음을 증명하는 각종 신분증이다.



▼ 학부 2년 학생들 1949



▲ 정치대학 학년말 시험시간표 政治大學 試驗時間表 1954



▲ 정치대학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1950년대

▲ 정치대학 학년말 시험과목배당표 1953
政治大學 學年未 試驗科目配當表

▲ 정치대학 학년말 시험과목배당표 1953
政治大學 學年未 試驗科目配當表

학년말 각 시험과목의 시간을 요일별로 정리하여 작성한 표 형식의 시간표이다.



▲ 6.25전쟁 당시 부산 구덕산 임시교사와 재학생의 모습 1952



◀ 정치대학 수업시간표 政治大學 受業時間表 1954

▼ 부산 피난 교사에서의 정치대학 2회 졸업생 모습 1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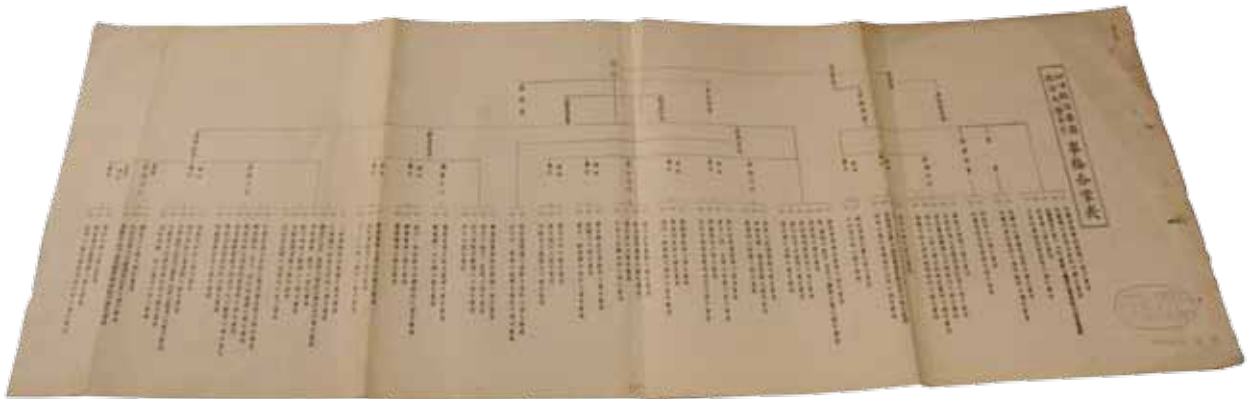




▲ 교직원 상호회 규약 教職員商調會規約 1958
교직원의 상호부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운영하기 위한 규칙과 규범을 기록한 문서이다.



▲ 정치대학 학사보고서 1953~1959
政治大學 學事報告書



▲ 정치대학 사무분장표 政治大學 事務分장表 1950~1960년대
정치대학 당시의 부서별 사무분장표이다.



▲ 정치대학 직원들이 야유회 간 모습 1956



▼ 정대 政大 2,3,4,5호 1953~1956

1952년 정치대학 제1회 졸업을 기념하여 교직원들이 함께 기고한 논문을 모아 만든 학술지이다. 『정대』는 제6호에 이르러 『정대학보』(1959년 2월)로 제호를 변경하여 간행되었고, 건국대학교로 승격됨에 따라 제7호부터는 『건대학보(建大學報)』(1959년 8월)로 제호가 변경되었다.



▲ 정치대학10주년 학술지 창간호 政治大學10周年 學術誌 1957

1957년 5월 10일, 정치대학 창립 1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서 그동안 교수 연구의 결실을 모아 만든 논문집이다. 인문과학 분야 2편, 정치경제 분야 10편, 법학 분야 6편 총 18편의 논문들이 수록되었다. 1958년 4월 15일, 『학술지』편찬위원회가 발족되어 연 1회씩 『학술지』를 간행할 것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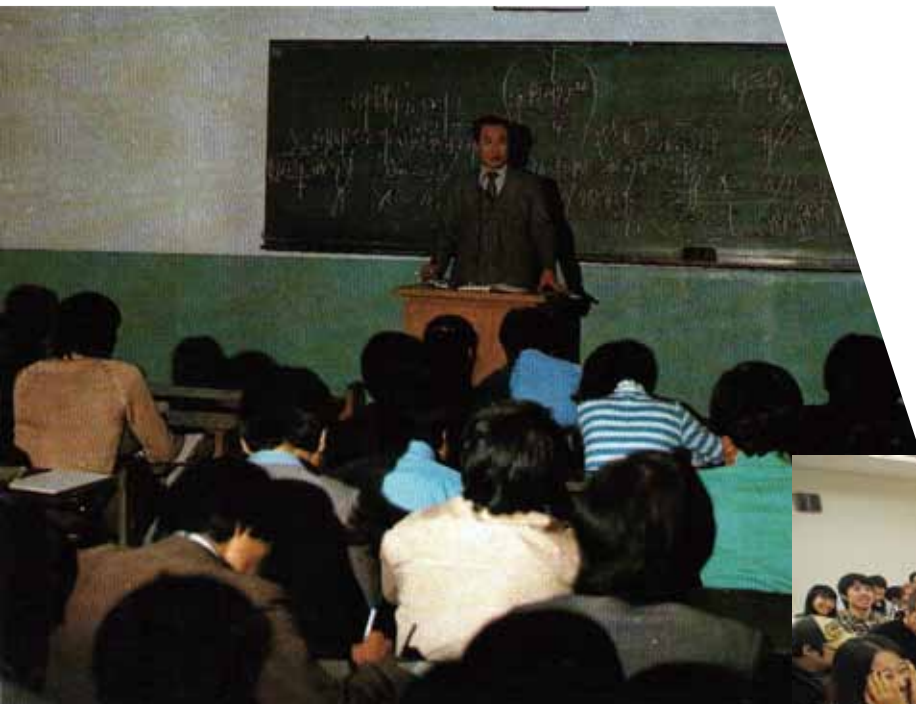
▲ 학술지를 증정하고 있는 유석창 박사 1961



▲ 정치대학 인장들 政治大學 印章 1950년대



▲ 철인 鐵印 1950년대



▲ 야간 공부하는 모습 1970년대



▲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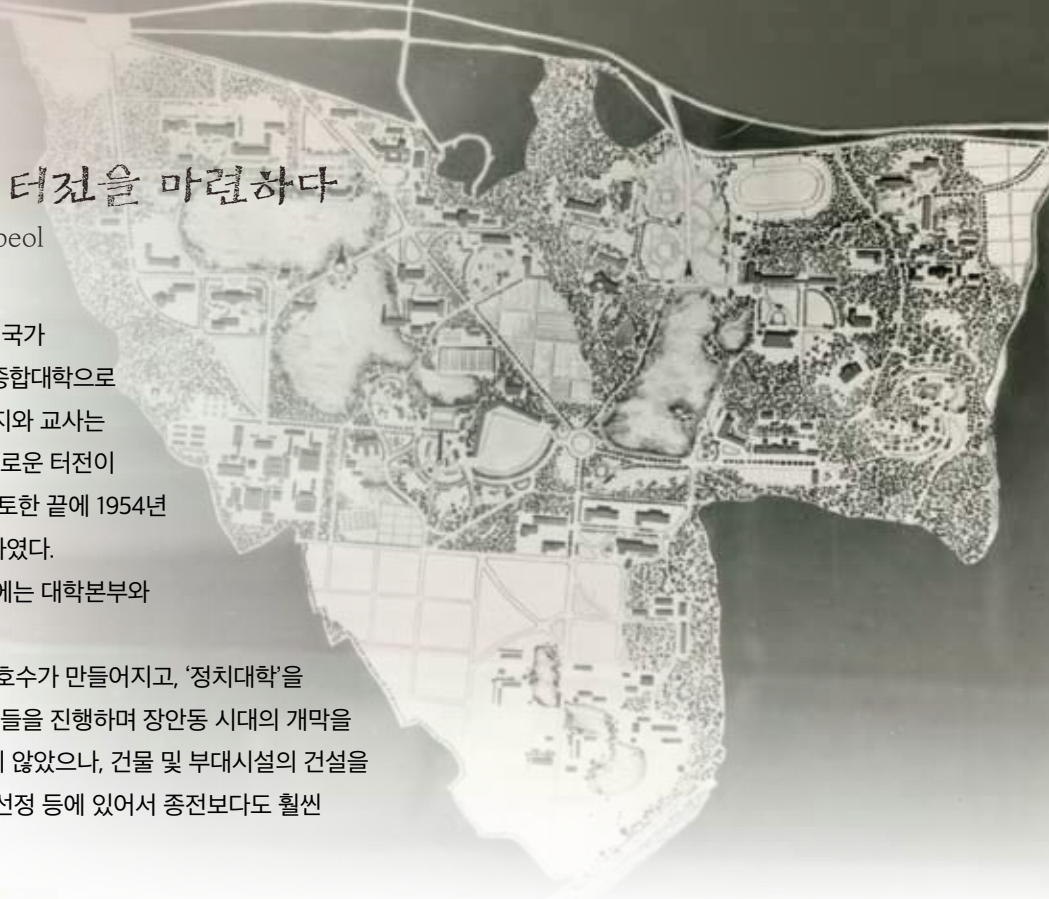


장안벌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다

Finding New Base in Janganbeol

6.25전쟁이 끝나자 학교는 문화복지국가 건설의 동량이 될 인재 양성을 위해 종합대학으로 발전하고자 하였다. 당시 작원동 교지와 교사는 종합대학 부지로서 협소하였기에 새로운 터전이 필요했고, 서울 근교의 여러 곳을 검토한 끝에 1954년 장안동을 새로운 학교 부지로 확정하였다. 이후 장안동 일대의 수십만 평 교지에는 대학본부와 기본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넓은 농원과 '일감호'라는 아름다운 호수가 만들어지고, '정치대학'을 종합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며 장안동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아직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지 않았으나, 건물 및 부대시설의 건설을 비롯하여 교과과정 설정과 교·강사 선정 등에 있어서 종전보다도 훨씬 확대·강화되고 있던 시기였다.



▲ 장안동 종합시설 조감도 長安洞 綜合施設 鳥瞰圖

유석창박사는 장안동의 광활한 대지 위에 캠퍼스를 건설하고자 계획하고 있었다. 장안동 일대에 약 72만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보통의 대학교육을 위한 시설건설뿐만 아니라 장차 농과계열 교육을 위한 각종 농장 및 목장시설도 갖추하고자 하였다.



▲ 유석창박사가 학교설립을 위해 장안동 벌판을 시찰하고 있는 모습이다. 1955



▲ 장안동 캠퍼스 건설부지를 답사하는 모습 1954



▲ 장안동 캠퍼스를 건설을 위해 사찰하고 있는 모습 1950년대



▲ 장안동 캠퍼스 건설 공사 현장 1954~1956

사진 뒤편에 보이는 건물은 장안동캠퍼스 제1교사로 1956년에 완공되었다.





▲ 유석창 박사가 장안동 벌판에서
처음 삽을 뜨고 있는 장면 1956



▶ 유석창 박사가 축대 가축사의 돈사(돼지우리)를
돌아보고 있는 모습 1950년대



▲ 1950년대 캠퍼스 전경



▲ 유석창 박사가 장안동 캠퍼스 건설을 위해 시찰하고 있는 모습 1950년대
 사진에 보이는 건물은 축대실습장 본실로 보임

▶ 건국대학교 캠퍼스 전경 19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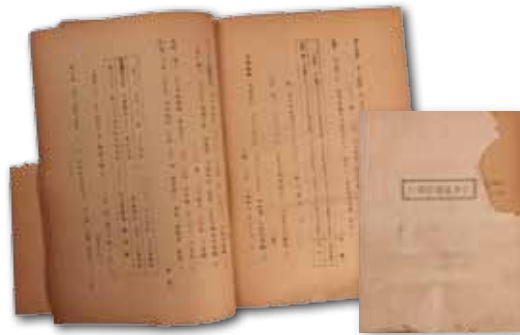
▲ 장안동캠퍼스 전경 1958

점차 모습을 달리해가던 건설중반의 캠퍼스모습은 지금의 문리과대학, 법경대학과 대학본부, 중앙도서관 그리고 일감호의 모습과 선화교, 청심대 등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 장안동 캠퍼스 제2교사 전경 1959

초창기에는 본관으로 사용되었다.
본관 이전 후에는 문리과대학, 농업협동조합초급대학,
대학원 등으로 사용되다가 상허연구관 건설을 앞두고 헐렸다.



▲ 대학설치기준령
大學設置基準令 1955

대학설치의 기준을 규정한 문교부 발행 문서



▲ 정치대학 본관(현 문과대 건물) 1950~1960년대

당시 정치대학 본관모습으로 현재 문과대 건물이다.



▲ 문과대 건물 1980년대

● 종합대학 건국대학교로 거듭나다

Promotion to Comprehensive University

서울 광진구 모진동에 70만평의 캠퍼스를 마련한 정치대학은 1959년 2월, 종합대학 인가를 받아 '건국대학교'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정식 출범하였다. 이로써 현재의 장안동 캠퍼스에 문리과대학, 정치대학, 축산대학의 3개 단과대학(5개 학부), 1개의 대학원에 1,224명을 입학시킬 수 있는 종합대학의 대망을 이루었다. 한편 1960년 2월, 기존 양어장인 일감호 외에 서호와 남호를 건설하여 양어장으로 하고 담수어 부화장을 건설하는 것과 축산대학 종합건설구, 문과대학 종합구, 종합운동장, 야구장, 과학관, 대강당, 박물관, 대야외극장 등의 건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대종합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학제를 정비하여 종합대학으로서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 성신의 교시 현판 誠信義 校是 懸板

건국대학교의 건학이념인 '성誠 · 신信 · 의義' 교시는 유석창 박사의 인생철학이기도 하다.



▲ 학교 교기 學校 校旗

▶ 건국대학교 및 학교법인 현판 建國大學校 및 學校法人 懸板 1970년대

제15회 법경대 졸업생 동문들이 졸업을 기념하여 기증하였는데 현재는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 건국대학교 사무분장표 建國大學校 事務分掌表





▲ 축산대학 2, 3기생 기념촬영 1961



▲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학생들 1960



▲ 여자초급대학 뗏쟁 수업장면 1963

학생들이 그림수업을 위해 종이에 뗏쟁을 하고 있는 모습



▲ 여자초급대학 타자기 수업장면 1963

학생들이 문서작성을 배우기 위해 수업 중에 타자를 치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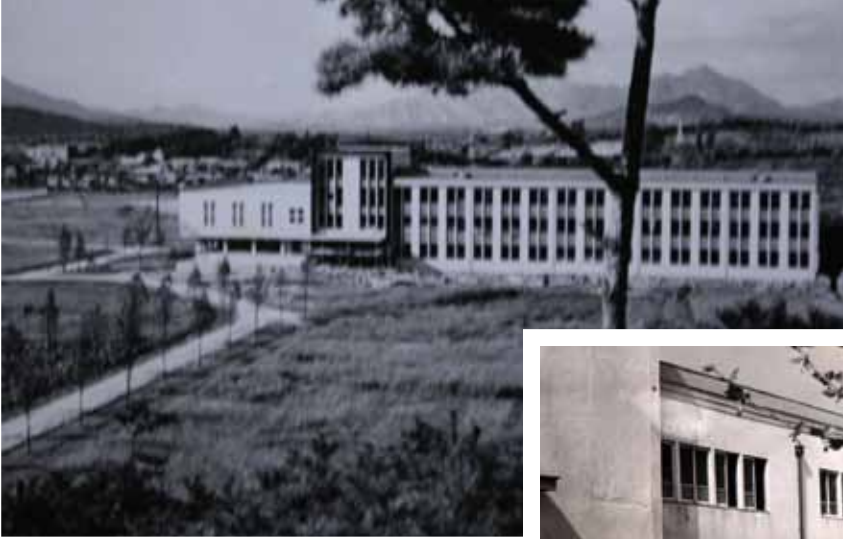
▲ 1960년대 캠퍼스 전경

남쪽 상공에서 바라본 중앙도서관의 모습이 보이며, Y자형의 건물모양을 하고 있다.



▲ 1960년대 일감호

일감호 뒤편으로 대학의 교사들이 보인다.



▲ 동관 1959

당시 동관 건물로 현재 문과대학이다.



▲ 생활관 신관 1960년대



▲ 생활관 의관에서의 실내생활 모습 1959~196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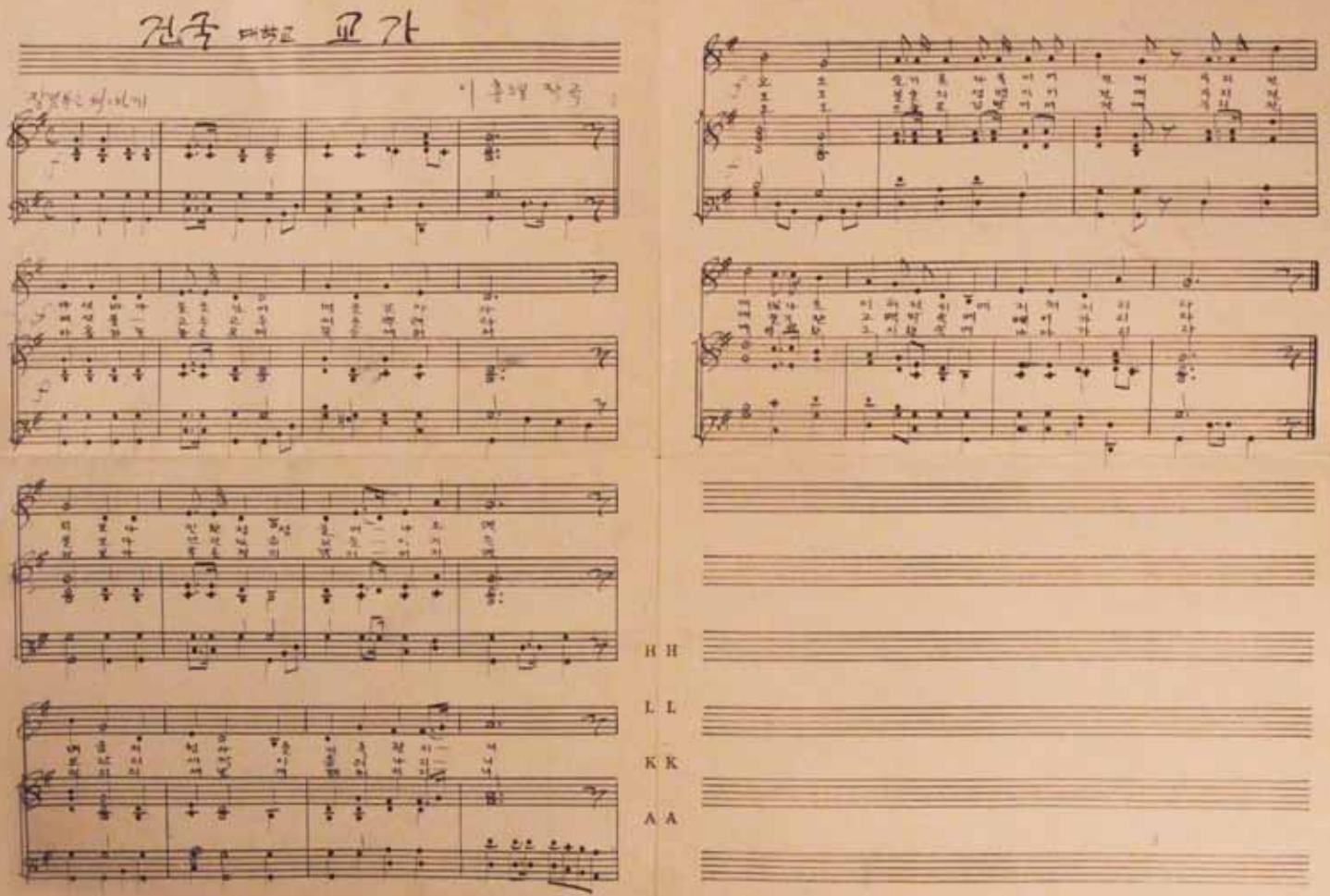


▲ 통학버스 1960년대

통학버스를 이용해 당시 축산대학에서 열린 제1회 전국 고등학교 교장 초청 교육연구 연수에 참여하는 연수단을 환영하는 장면이다. 당시의 통학버스의 모습과 손을 흔드는 교수들의 모습이 정겹다.



▲ 교통안내문



▲ 교가 원본 校歌 原本

학교 설립 당시 제정된 교가의 원본으로 조일문 작사, 이흥렬 작곡이다.

(誠 절) 다섯 바다 물을 길어 먹을 갈아라
 피보다 진한 정성 우러 나오면
 배움의 청사를 기록할지니
 오오 슬기론 자욱이여 건대 우리건대
 빛나는 이 터전 위에 끼쳐지리라

(信 절) 여섯 물 고루고루 씨를 뿌려라
 불보다 뜨건 믿음 깃들이거든
 보람의 새 샅이 움터나리니
 오오 불굴의 생명이여 건대
 우리건대 그 맥박 속에 뻗어가리라

(義 절) 아홉 하늘 높은 곳에 뜻을 세워서
 칼보다 푸른 정의 뉘어지면
 진리의 새 날개 펼쳐지리니
 오오 드높은 깃발이여 건대 우리건대
 영원한 그 지향 속에 나아가리라



▲ 현재 학생회관 1층 벽면에 새겨진 교가



경비에 박차를 가한 1960-70년대

1960's ~ 1970's, Aligning School Organization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이후 60-70년대 우리 학교는 학제 개편과 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했다. 농촌근대화의 역군 양성을 위해 대학 병설 지역사회개발초급대학 · 농업협동조합초급대학 · 여자초급대학 등을 설립하였고, 이후 수차례에 걸친 단과대학 개편을 통해 1969년 12월, 문리과대학, 공과대학, 법경대학, 축산대학, 가정대학, 2부대학의 7개 단과대학, 대학원 및 행정대학원을 설치하였다. 아울러 캠퍼스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다음 단계의 도약을 준비하였다.

1970년대에는 설립자 유석창 박사의 서거를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였다. 1971년 가정대학 교사를 시작으로 같은 해 5월 15일 우리 대학 상징동물인 황소상이 만들어졌고, 실내체육관 민중병원, 본관, 여학생 가정실습관 및 생활관(현 도정궁 경원당)등이 차례로 지어졌다. 특히 학생들의 요람이 된 학생회관이 80년 7월 일감호에 걸쳐 지어짐에 따라 한층 웅장한 캠퍼스로 변모하게 되었다.





▲ 5.16 군사정변 때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는 학생들 1961



▲ 제1회 건대제전을 기념하기 위한 아치 1962



▲ 이준 열사유해봉환 1963

이준 열사는 1907년 음력 7월 14일 순국하셨다. 그의 유해는 네덜란드 헤이그 뉘에크 엔다운 시립묘지에 안장되었다가 광복 후 한국으로 봉환되어 돌아왔다. 1963년 9월 30일 이준 열사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낙원동 분교에 유해가 임시 봉환되었다가 이후 수유리 순국선열 묘역에 안장되었다.



▲ 건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 표지판 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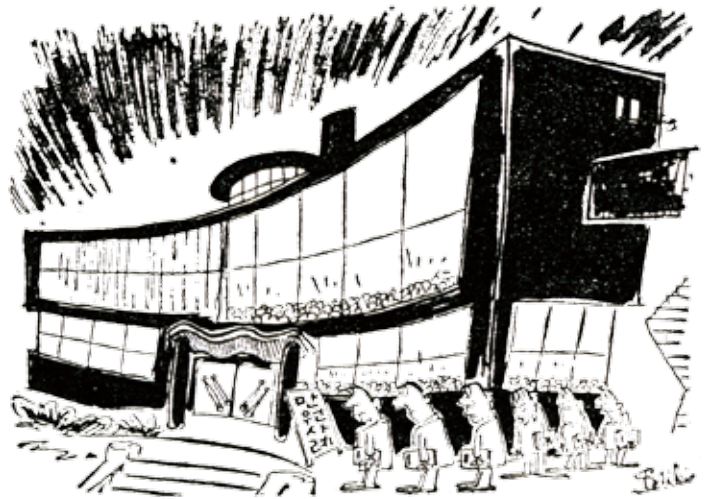


▲ 너른 잔디밭에 삼삼오오 앉아있는 학생들 1963



▲ 중앙도서관 건립 1963

중앙도서관은 1957년 건립을 시작하여 1963년에 완성되었다. 건축가 김중업에 의해 설계되었는데, 현재는 언어교육원으로 쓰이고 있다. 김중업은 프랑크대사관, 삼일로빌딩, 평화의 문 등을 비롯해 우리나라 1세대 건축가로서 큰 업적을 남겼다.



不夜城입니다

中央圖書館夜景은 우리建國建兒의 오늘과내일의후춧
달 戀星의요람 지입니다 한번와보시지요!

—白岩日·畫—

▶ 건대신문 1964년 5월 22일 179호



▲ 중앙도서관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 1963



▲ 일감호에서 즐기는 스케이팅 장면 1963



▲ 일감호에 찍은 어느 부부의 풍경사진 1960년대



▲ 제1회 전국남녀중고등학생대항 빙상대회 1963



▲ 제19회 전국남녀종합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권대회 1964

1960년~1970년 겨울 일감호 축제를 맞이했다. 이 중 제1회 전국남녀중고등학교대항 빙상대회가 열렸고, 제 19회 전국남녀종합 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를 일감호에서 했다.



▲ 창립20주년기념 카니발 행사 1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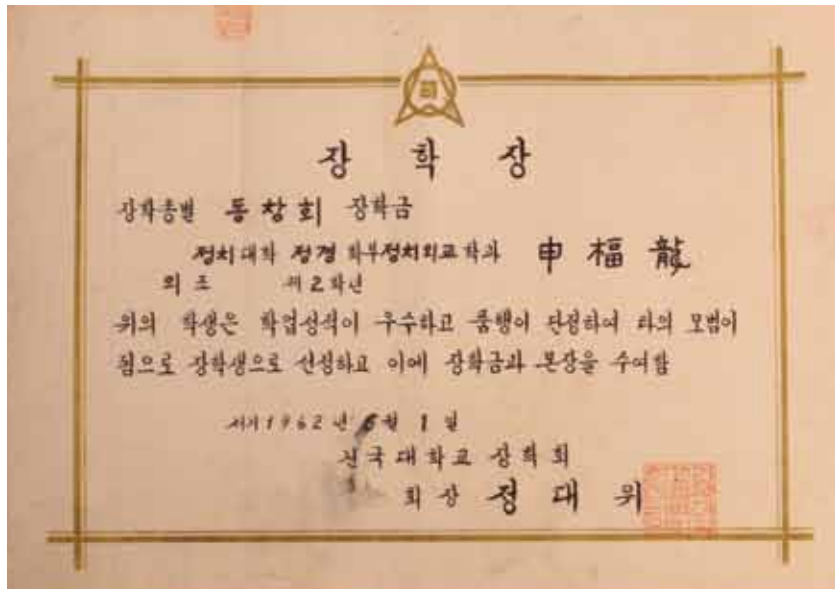
▲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유석창박사 1966



◀ 건국중·상업고등학교 신축교사 기공식 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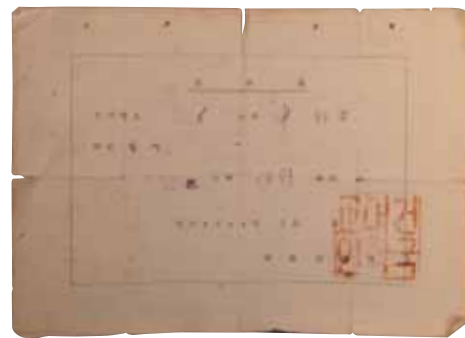
◀ 건국중학교 교사 준공식 1969



▲ 학생증, 장학장, 통지표 등 1961~1963

學生證, 獎學狀, 通知表 신복룡 기증

신복룡이 소장하였던 정치대학과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재학 시절 학생증과 장학증서, 통지표이다. 신복룡은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여 동 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대학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 일본 일진축산 본사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1964



▲ 일본 일진축산 본사로 파견되어 실습중인 학생들 1964



▲ 계단형 강의실 수업 광경 1964



▲ 정치대학10주년 학술지 政治大學10周年 學術誌 1957~1960년대
학술지는 1957년 창간된 이래 매년 도서를 발간하였다.



▲ 창립20주년기념 학술강연회 1966



▲ 가축병원 설치 규정안
家畜病院 設置規定案 1964

가축병원 설치규정안과 병원 앞에서 의료진이 강아지를 들고 기념촬영을 한 사진이다. 축산대학 실습장의 가축병원은 1961년 국내 사립대학 동물병원으로는 처음 문을 열었고, 오늘날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으로 발전했다.



▲ 축산대학 부속 가축병원 1966



▲ 축산대학 교사 1961



▲ 현재 수의과대학 전경



▲ 동관 1963

초기에는 장안동 교사에 동관으로 건설되었다. 당시 본관으로 쓰이다가 현재는 문과대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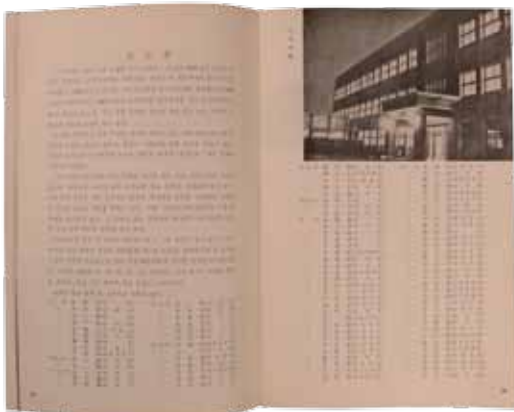


▲ 각종 리플렛
(문리과대학 · 지역사회개발 초급대학 · 축산대) 1964



▲ 안내서 案内書 1962년, 1964년, 1965년

학교 소개 및 각종 대학생활에 대한 정보가 수록된 책자



▲ 학교안내서의 이부대학 소개부분 1964



▲ 입학안내서의 소개부분 1965



▲ 정치대학 공문서철 政治大學 公文書綴 (교무처) 1962



▲ 대외공문서철 對外公文書綴 (교무과, 학적과) 1968



▲ 문리과대학 1961

초기에 문리과대학으로 쓰이다가 현재는 사범대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 문리과 대학 표본실 1961



▲ 농과대학 교사 1968

농과대학의 효시는 1964년 설치된 농림대학이다. 농림대학은 설치 후 초기에는 현재 공과대학 건물에 자리하고 있다가 1968년 교사를 이전하였다. 현재 이 건물은 생명과학관 부속동으로 사용되고 있다.



▲ 시간강사 일람표 타대학 재직자 명단
時間講師一覽表 他大學在職者名單 1965

1965년 당시 다른 대학교에 재직 중이던 시간강사 중 건국대학교에도 출강하는 인원을 기록한 명단이다.



▲ 1학기 각과목별교강사배정표
1學期各科目別教講士配定表 1966



▲ 2학기 시간강사 제청서
2學期時間講師提請書 1966

▲ 교강사강의(주당)시간집계표
教講士講義(周堂)時間集計表 1966



▲ 교명 현판 校名 鐵板



▲ 1970년대 교문

1970년 교문 바깥에 아치가 세워졌었다. 현재 후문에 있었던 것으로 지금은 철거되고 없어졌다.



▲ 교문 입구에서 학생증을 검문하고 있는 모습 1954



▲ 1960년 교문



▲ 1970년대 교문



▲ 각종 안내 책자 1970년대
案内書



▲ 입학 안내서 (행정대학원) 1975
入學案内書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안내서 1972
新入生 入學案内書



▲ 에밀리오 포르테스 힐 전 멕시코 대통령 명예 법학박사 학위수여식 1970



▲ 1973학년도 입학식



▲ 학도 호국단 발단식 1975



▲ 교지 校誌 1집 1971

학교에서 처음 발행한 기관지이다.



▲ 학칙 學則 1975

학교의 학과, 편제, 교과 과정, 입학, 졸업 등 학교 경영의 기본이 되는 규칙을 적은 책이다.



▲ 황소상 건립 1979



▲ 가정대학 건물 1972



▲ 학생회관 건립 1979



▲ 공과대학 건물 1976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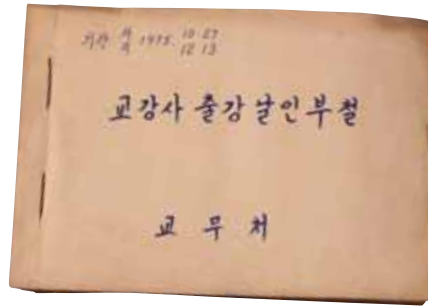


▲ 범경대학 건물로 현재는 사범대로 사용 1976 추정



▲ 건국교우회 회원수첩
建國校友會 會員手帖 1975

한 학교에 재직된 사람들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제작한 수첩



▲ 교강사 출강날인부철 敎講師 出講捺印文書綴 1975

강의를 하러오는 강사들이 직접 날인하는 문서철.



▲ 우리대학을 방문한 40여명의 대만 교수단 1973



▲ 동문회 건국인의 밤 1974



▲ 문리과 대학(현 사범대 건물) 이학부의 전경 1972



▲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생활미술학과 학생들 1972



▲ 공예학과 학생들의 실습 장면 1972



▲ 규방칠우와 함께 침선에 몰두하는 의상학과 학생들 1972



▲ 의상학과 재봉틀 실습시간 1974

▼ 공예학과 도자기 실습 장면 1970년대





▲ 이학부의 실험실습 장면 1970년대



▲ 전자현미경으로 실습하고 있는 모습 1970년대



▲ 하계 대학생 농촌봉사 1973



▲ 하와이로 원정 경기를 간 야구팀 1975



▲ 전국남녀대학대학 테니스대회 우승 1977



▲ 가정대학 공예학과 졸업작품전 1976



▲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의 합창발표회 1976



▲ 건국대학교 부설 서울국제학교 낙성식 1977



▲ 제3회 전국대학생학술연구발표대회 1978



▲ 건국대학교 부설 민중병원 개원식 1979



▲ 새마을운동 국제심포지움 1979

1980-90년대, 도약과 비상의 발판을 마련하다

1980's ~ 1990's, Preparing to Leap Forward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건국대학교는 혁신을 거듭했다. 1980년 1월에 충주캠퍼스 설립을 인가받아 제2캠퍼스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고, 1985년에는 의과대학 설립인가를 받는 등 비약적인 교세 확장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양 캠퍼스에 16개의 단과대학이 설치되고, 대학원과 특수대학원 6개를 가진 웅대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한편 서울캠퍼스의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교사를 비롯하여 공과대학 신관, 교양학관, 선수생활관, 사회과학관, 상허기념도서관, 축산대, 일감호 노천극장, 체육부 선수촌, 기숙사 등을 갖추며 2000년대를 향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다. 특히 1985년에는 낙원동 캠퍼스의 상징이자 건국대학교의 요람으로 사용된 옛 서북학회 건물(현 박물관 겸 상허기념관)을 학교 내로 이전하여 뿌리 깊은 역사와 전통을 대내외에 알리는 일에도 힘썼다.



▲ 대학생활안내서 大學生活案内書 1980~1990



▲ 개교38주년 기념식 및 일감호축전 1984



▲ 개교37주년 기념식 및 일감호 축전 1983



▲ 충주캠퍼스 학생복지회관 준공식 1984



▲ 제1회 상허사상연구발표회 1985



▲ 1980년대 캠퍼스 전경



▲ 상허기념관 준공식 1985



▲ 제10회 동문 재상봉회 기념식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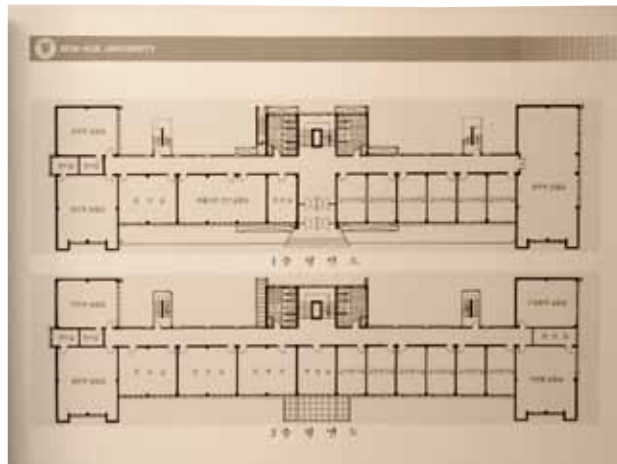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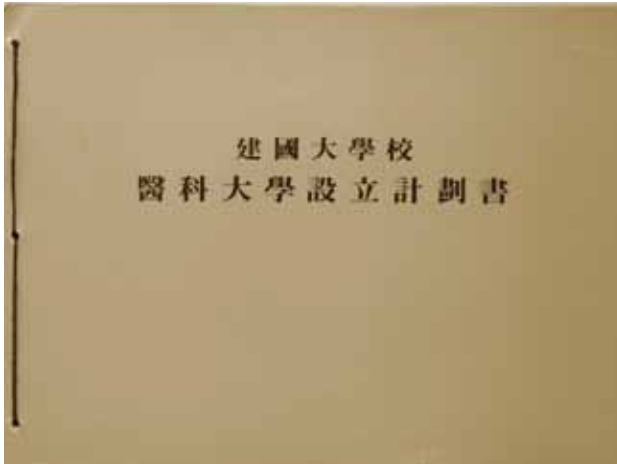


▲ 사회과학관 준공식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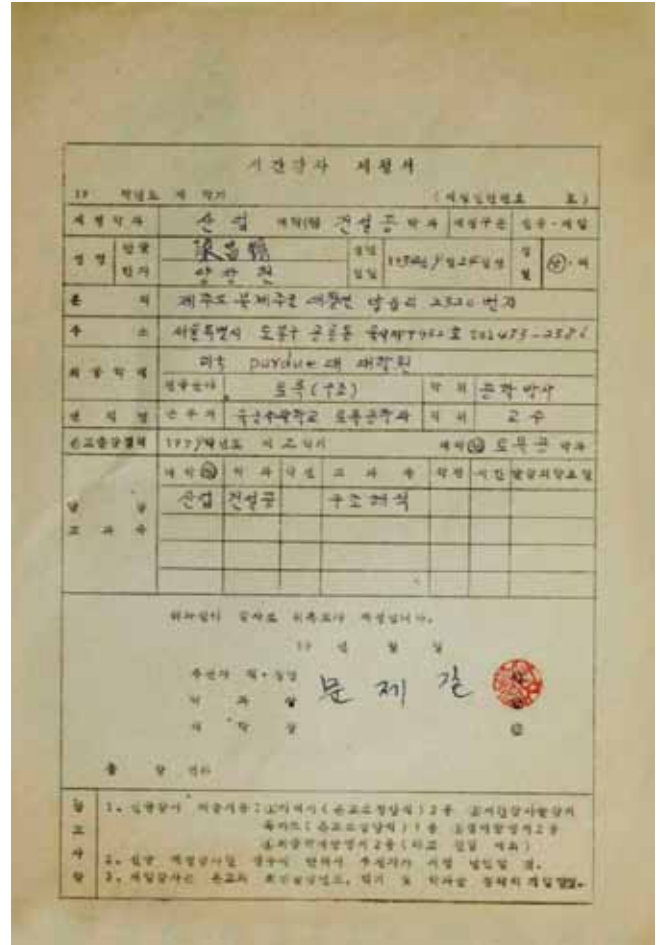


▲ 상허기념도서관 개관 1989





▲ 의과대학 설립 계획서 醫科大學 設立計劃書 1980년대
1980년대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기본 계획서



▲ 산업대학원 시간강사(건설공학과) 제청서 1980
産業大學院 時間講師 提請書 남문현 기증
본교의 교강사로 위촉하고자 하기 위한 문서

1980-90년대, 도약과 비강의 발전을 마련하다 |



▲ 현재 건국대학교병원의 모습



▲ 병원 건립 계획 초기의 조감도 1980년대



▲ 개교30,31,32주년 기념패 開校30, 31, 32周年 紀念牌
1980~1982

▼ 개교36주년 기념 행사 1982





▲ 교원 급여명세서 教員 給與明細書 1984~2007



▲ 기능직 제복 制服 1980년대



▲ 농과대학 농기계 실습하는 모습 1980년대



▲ 공과대학 콘크리트 강도시험 1980년대



▲ 가정대학 실기 수업장면 1982



▲ 공과대학 전동기 제어실험 1980년대



▲ 상경대학 교사 1980

초기에는 상경대학 교사였으나 현재는 사범대 건물로 쓰이고 있다.



▲ 공과대학 교사 1980



▲ 충주캠퍼스 자연과학대학 교사 1984



▲ 캠퍼스풍경 1990



▲ 정문 준공식 1991



▲ 제2차 세계 언어문자 조형물 제막식 1991



▲ 축산대학 증축 준공식 1991



▲ 상허문화재단 창립1주년 1992



▲ 후기 입시전형의 면접을 치르는 수험생들 1996



▲ 학군단 임관식 1994~1998



▲ 21세기 대학발전 교직원 세미나 1997



▲ 체육부 육상 기념촬영 1996



▲ 졸업식 풍경 1997



▲ 등록금 시위 1996



▲ 이과대학 1990년대



▼ 공과대학 1990년대



2000년대 이후, 조화로운 캠퍼스를 꿈꾸다

2000's, Dreaming of a Balanced Campus

2000년대는 대학의 확장을 도모하는 한편 대학 간 경쟁의 격화와 구조조정의 바람을 타고 학사구조 개편에 착수하여 현재 대학원과 2개 전문대학원 및 10개 특수대학원, 20개 단과대학 및 교양학부를 가진 대규모의 교육기관으로 성장하였다.

한편 학생과 교직원 증가에 어울리는 시설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학교는, 재단 소유의 부지 개발을 통한 수익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새천년관, 법학전문도서관, 상허연구관, 예술문화관, 의생명과학연구관, 건축관, 해봉부동산학관, 신공학관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우수교원을 총원하여 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최첨단 스포츠타운 건설을 통해서 활동 여건을 강화하는 등 건국인의 자긍심과 대학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 교직원 워크숍 자료집 教職員教育資料集 2000



▲ 서울캠퍼스 신입학 정시모집에서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는 사람들 2000



▲ 제2학생회관에서 월드컵을 응원하는 학생들 2002



▲ 골프대회 우승 납상식 2000



▲ 건국대와 동아대가 야구경기를 하는 장면 2002





▲ 대학발전계획보고서 大學發展計劃報告書 2000년대



▲ 학교마스터플랜 자료집 學校綜合計劃資料集 2000년대



▲ 예술문화관 건립 2000년대



▲ 황소상 주변 풍경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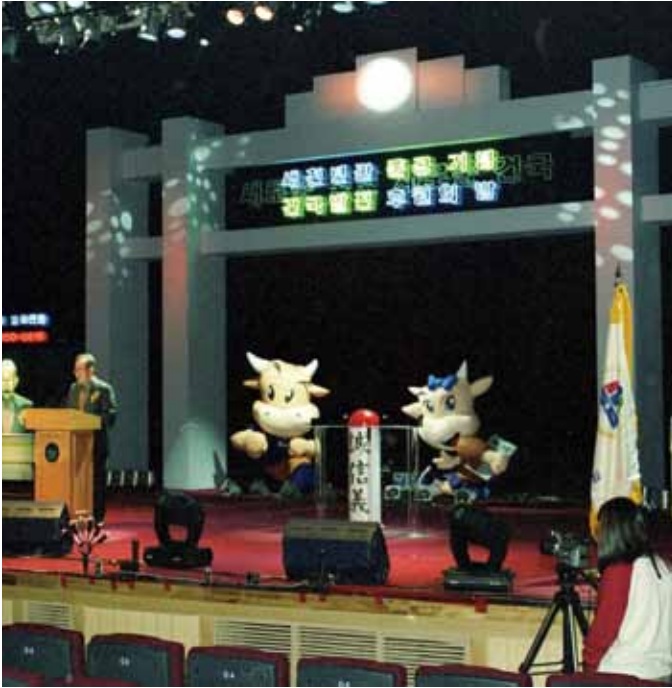
▲ 상허기념도서관 앞의 유석창 박사 동상



▲ 의생명과학연구원 건립 2007



▲ 2000년대 캠퍼스 풍경



▲ 건국발전 후원의 밤-새천년관 준공기념식 2000



▲ 상허사상 재조명을 위한 초청강연회 2000



▲ 수의과대학 및 부속동물병원 신축공사 착공식 2001



▲ 에베레스트 원정대 발대식 2003



▲ 생명과학관 준공식 2003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보고회(국제회의장) 2004



▲스타시티 개발 약정식 2002



▲이천 스포츠과학타운 준공식 2005



▲민자 기숙사 신축공사 착공식 2005



▲이천 스포츠과학타운 조감도 2005



▲스타시티 대단지의 전경

◀더클래식500의 전경

역대 총장

Past Presidents



초대 학장
오하영 (吳夏英)
(1949.5.15~1950.9.30)



초대 총장
유석창 (劉錫昶)
(1959.3.31~1961.9.30)



제 2,3대 총장
정대위 (鄭大爲)
(1962.1.15~1968.5.13)



제 4대 총장
문희석 (文熙奭)
(1968.11.5~1970.12.26)



제 5,6,7대 총장
곽종원 (郭鍾元)
(1971.1.6~1980.3.28)



제 8대 총장
조일문 (趙一文)
(1980.3.29~1983.2.28)



제 9,10대 총장
권영찬 (權寧贊)
(1983.3.1~1988.5.20)



총장직무대행
윤효직 (尹孝稷)
(1988.5.21~1988.8.9)



제 11대 총장
김용한 (金容漢)
(1988.8.10~1991.2.28)



제 12대 총장
안용교 (安溶敎)
(1991.3.1~1993.1.31)



제 13대 총장
정호권 (鄭鎬權)
(1993.2.1~1994.6.21)



총장직무대행
김현용 (金鉉龍)
(1994.6.21~1994.8.31)



제 14대 총장
윤형섭 (尹亨燮)
(1994.9.1~1998.8.31)



제 15대 총장
맹원재 (孟元在)
(1998.9.1~2002.8.31)



제 16대 총장
정길생 (鄭吉生)
(2002.9.1~2006.8.31)



제 17대 총장
오명 (吳明)
(2006.9.1~2010.8.31)



제 18대 총장
김진규 (金辰圭)
(2010.9.1~2012.5.29)



제 19대 총장
송희영 (宋熹永)
(2012.5.30~현재)

역대 이사장

Past Presidents



초대 이사장
강기덕 (康基德)
(1948.5.12~1949.11.10)



제 2,3대 이사장
유석창 (劉錫昶)
(1949.11.11~1951.11.11)



제 4,5대 이사장
신태수 (申泰洙)
(1951.11.12~1961.11.7)



제 7,8,9대 이사장
유석창 (劉錫昶)
(1961.11.8~1972.1.1)



제 10,11대 이사장
유일운 (劉一潤)
(1972.1.19~1978.1.5)



제 12,13대 이사장
유승윤 (劉承潤)
(1978.1.27~1982.6.8)



제 14대 이사장
김계옥 (金桂玉)
(1982.6.9~1983.12.2)



제 15,16,17대 이사장
유승윤 (劉承潤)
(1983.12.21~1993.4.20)



제 18,19대 이사장
현승중 (鉉勝鍾)
(1993.5.1~1999.7.11)



제 20대 이사장
이중근 (李重根)
(1999.7.12~2001.1.25)



제 21대 이사장
김경희 (金敬姬)
(2001.1.26~현재)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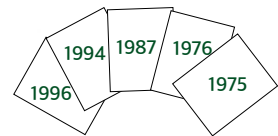
입학에서
졸업까지,
건국의 라이프

입학의 기쁨과 환호, 짧고 강렬하게!

Joys and Cheers for Admissions, Short but Powerful!

매해 반복되는 시험과 자율학습, 내신, 수시·정시 등 전형 그리고 대입고사, 논술, 실기시험 등의 치열함 속에서 우리는 경쟁해왔다. 수험생들은 길고 긴 입시전쟁을 마치고 합격통보를 기다리는데 과거에는 대형 벽보를 통해 합격자가 발표되었고,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시에 많은 인파가 몰리기도 했다. 벽보에서 자신의 수험번호를 발견한 학생과 아닌 학생들 사이에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장관이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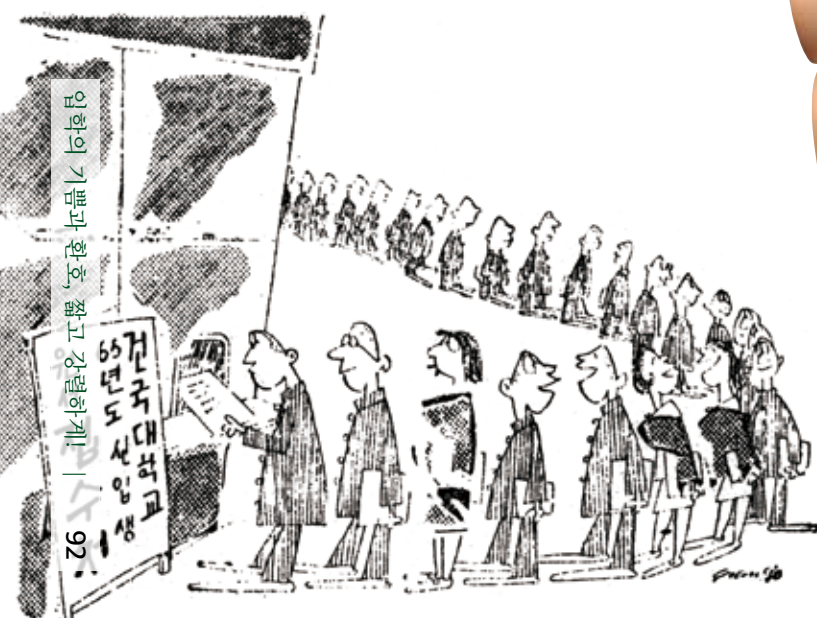
합격자 발표는 점차 자동응답시스템으로 변해갔는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간단히 조회해 볼 수 있다. 개교 이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립대로서 매년 치열한 입시전쟁을 치러야만 입학할 수 있었던 건국대의 입시전형을 통과한 새내기들이 봄에 대학 캠퍼스를 거닐게 된다. 대학생이 되면 신입생을 맞이하기 위한 입학식이 거행되며, 학생증도 발급받게 된다. 또 단과대와 학부별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여 신입생들을 맞이한다.



▲ 신입생 모집요강
新入生 募集要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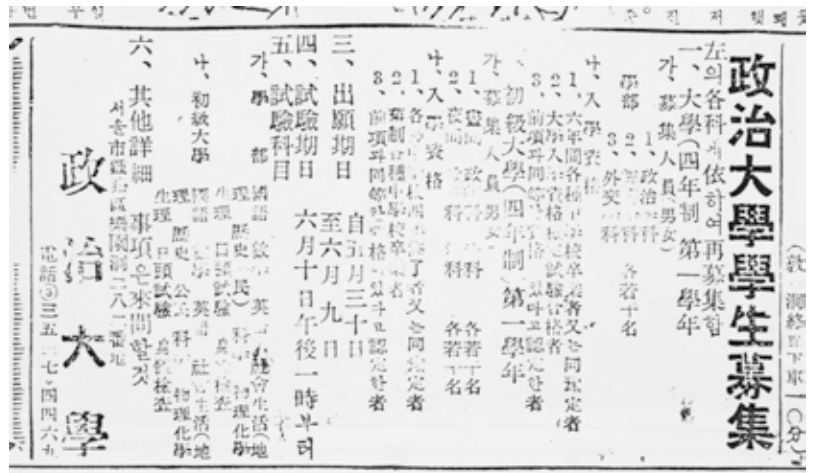


▲ 신입생선발고사 시행세부계획서
新入生 選拔考査 施行細部 計劃書 1972





▲ 조선정치학관 학생모집 광고
朝鮮政治學館 學生募集 廣告
1948년 3월 18일



▲ 정치대학 학생모집 광고
政治大學 學生募集 廣告
1950년 6월 5일



▲ 신입생 모집요강 新入生 募集要綱 1965



원근교원서점수



▲ 신입생 입학고사에 출제된 문제지(영어, 국어, 농업통론)
 新生入學考査 出題 問題紙(英語, 國語, 農業通論) 1965



▲ 입시문답집 入試問答集 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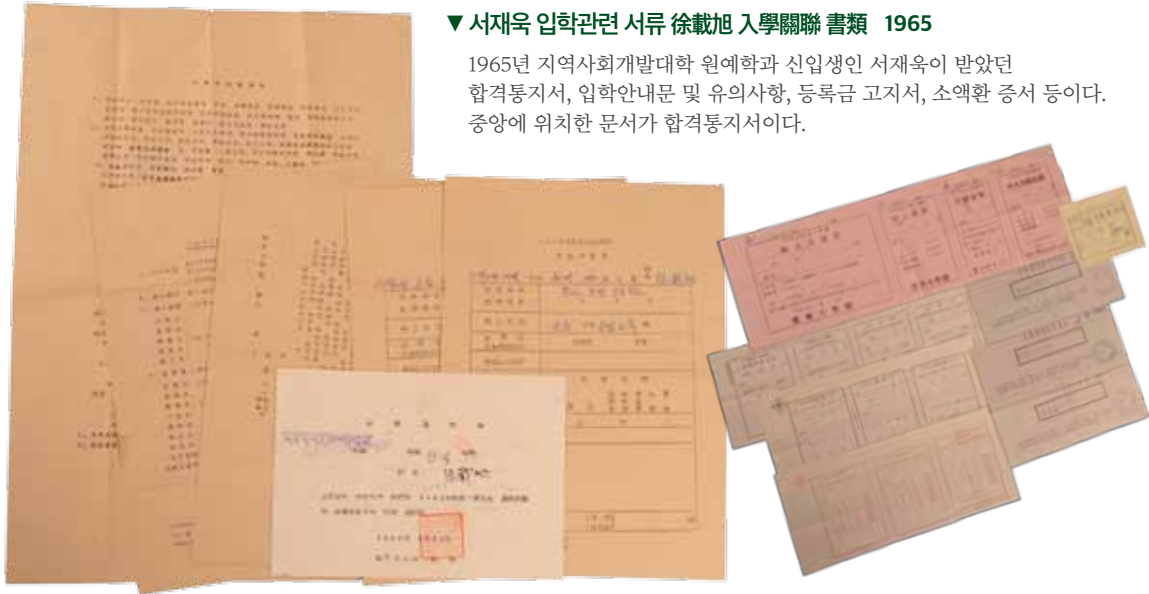
▲ 출신고교별 신입생합격자 명단
 出身高校別 新入生合格者 名單 1970년대



입학시험을 보는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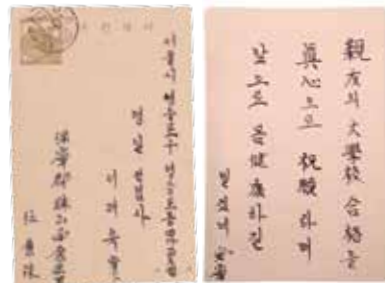
▼ 서재욱 입학관련 서류 徐載旭 入學關聯 書類 1965

1965년 지역사회개발대학 원예학과 신입생인 서재욱이 받았던 합격통지서, 입학안내문 및 유의사항, 등록금 고지서, 소액환 증서 등이다. 중앙에 위치한 문서가 합격통지서이다.



▲ 사학과 신입생 박은경의 대학 합격통지서
史學科 新入生 朴銀京 大學 合格通知書 2008

사학과 신입생 박은경의 2009학년도 대학 합격통지서로 총장 인사말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되었다. 요즘은 수험생들이 온라인으로도 자신의 합격여부를 확인 할 수 있지만, 직접 우편으로 받아보는 합격통지서를 보며 건국인으로서의 첫 자부심과 설레임을 느끼게 된다.



▲ 서재욱의 합격 축하엽서 1965
徐載旭 合格 祝賀葉書

서재욱의 대학 합격을 축하하며 그의 친구가 보낸 엽서이다. “친한 벗(親友)의 대학교 합격을 진심으로 축원하며, 앞으로 몸 건강하길 빌겠네, 안녕!” 이라는 짧은 엽서글이지만 친구의 앞날을 축원하는 진심이 느껴진다.



합격자 발표

입학식 이모저모



▲ 상아탑으로의 첫발, 1972학년도 입학식



▲ 각 단과대별 신입생들



▲ 1975학년도 입학식



▲ 1997년도 입학식



▲ 2000학년도 입학식



▲ 입학식을 가는 학생들의 모습 2016



▲ 신입생 장학증서 수여식 2016



▲ 새천년관에서 거행된 입학식 2016



◀ 신입생 환영회 페넌트 1975

입학을 기념하는 페넌트로 1980년대까지 유행했다.



▲ 야간 법학과 대학생들의 입학 기념하며 1946



▲ 신입생을 환영하는 선배의 포크송 공연 1964

환영회 이모저모



▲ 동기들과의 첫 만남 1960



▲ 신입생을 환영하는 건국응원단의 축하 세레머니 2015



▲ 동문 연예인과 함께하는 입학식 2015

학생증



▲ 학생증 學生證(초급대, 문리과대, 지사대, 축산대) 1959~1963

좌로부터 이금, 강향조, 오진용, 박진영, 장태남, 노학두, 박장춘



▲ 학생증 學生證(정치대, 문리과대) 1959~1962

좌로부터 유병진, 김종식, 이건구, 김태주, 오병주, 최중희, 함재희



▲ 학생증 學生證 2016

옛날의 학생증은 종이로 된 신분증의 개념이었다면 최근의 학생증은 도서관 출입 및 교통카드와 금융 기능이 있는 스마트한 학생증이다.





미끄러지기는 쉽고 오르는 것은 어려운, 대학수업

College Classes, Easy to Fall, Hard to Climb

보통 4년이라는 시간동안 다양한 과목의 수업을 통해 필요한 학점을 채워야 한다.

수업은 크게 1학기과 2학기로 운영되며 필요에 따라 여름과 겨울 계절학기 수업도 들을 수 있다.

학기마다 개설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 수강신청은 과거부터 학생들에게 한 학기의 운명을 결정 짓는 중요한 관문이다. 예전에는 학과 사무실에서 수강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등록금 영수증과 함께 학적과에 제출해야 했다. 누구나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강의마다 수강인원이 정해져 있어 속도전은 필수다.

온라인 수강신청이 도입되면서 어디서이나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버 응답과 인터넷 속도 때문에 학생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것은 여전하다. 학생의 본분이 학업이라면 시험은 그 학업과정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안타깝게도 성실한 학우의 노트를 빌려 복사하거나 족보를 구하는데 더 열심인 학생들도 있다.

학점은 한 학기를 마감하는 결과인 동시에 장학금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울고 웃게 만든다.



▲ 정치대학 수강신청서 政治大學 受講申請書 1953

정치대학 2학기 수업(상법, 행정법, 헌법, 민법 등)을 수강했던 김서목이 제출한 수강신청서이다.

▲ 정치대학 수험신청서 政治大學 受験申請書 1953



▲ 정치대학 행정학과 출석 카드 政治大學 行政學科 出席證 1954

수업을 들을 때 학생들의 출석 확인을 위해 사용된 수첩이다.



▲ 행정학과 재학증명서 行政學科 在學證明書

김서목의 재학증명서이다.

▲ 정치대학 학년별 학과별 과목일람
政治大學 學年別 學科別 科目一覽 1953

▲ 건국대학교 종합강의시간표
建國大學校 綜合講義時間表 2016



▲ 2부대학의 야간수업 광경 1978



▲ 종합강의의 시간표
綜合講義時間表 1977~1992

▲ 농과대학 교과과정표
農科大學 教科課程表 1953

受業時間表

▲ 정치대학 수업시간표 政治大學 受業時間表 1953

試驗時間表

▲ 정치대학 시험시간표 政治大學 試驗時間表 1953

▼ 학생들이 시험공부 하는 모습 1957



▼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모습 1958







지식과진리를 추구하며 탐구하는 건국인

옛 사진 속의 건국인의 모습은
지금과는 사뭇 다르지만 학문에 대한
건국인의 열정만큼은 똑같았다.

1960년대에 행해졌던 수의학과의
해부학 실습이나 법학도들의
모의 재판 모습은 지금 보아도
그리 어색하지 않다.

각 학과의 다채로운 실습장면이나
계단식 강의실에 앉아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고 있는
건국인의 모습이 흥미롭다.



달마가 '동방'으로 가는 까닭?

Why is Bodhidharma Going East?

대학생활의 낭만과 추억은 동아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취향과 개성에 따라 자신의 적성을 발휘하고, 타인과의 교제와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우리대학의 동아리 활동은 1957년부터 시작되었다. 낙후된 농촌 개발을 위해 농촌봉사활동을 주축으로 한 학교는 교내학습과 현지실습 등을 통해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돕고, 창조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한편 봉사를 실천하며 교류의 한 축을 담당하기도 하고, 나아가 개인의 관심을 넘어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적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동아리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 농촌실습 1960



▲ 컴퓨터클럽창립기념 페넌트 1974



▲ 가정대학 의상학과 의상발표회 1973

1973년 7월 14일 광장동 위커히호텔 수영장에서 열린 의상학과 학생들의 졸업작품 발표회이다.



▲ 제1회 씨클인의 밤 페넌트 1970



▲ 농악대의 공연 모습 1976



▲ UNESCO 학생회의 학술토론회 모습



▲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1973



▲ 연극반의 셰익스피어 페스티벌 1964



▲ 본교생들의 하계 농촌봉사활동 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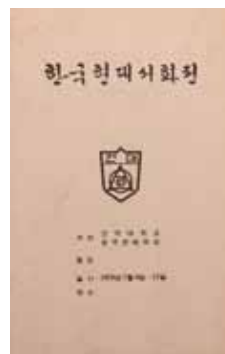


▲ 봉사활동을 마친 뒤 마을주민과 기념촬영 1977



▲ 중국당대서화전시회 中國當代書畫展示會 1977

중국현대서화 작품을 소개한 전시회로 중국대사관이 주관하여 본교에서 개최되었다. 전시기간은 1977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되었다.



▲ 한국현대서화전 韓國現代書畫展 1978

본교와 중국문화학원이 주최한 서화전의 안내책자이다.

낭만과 도전, 대학인의 열정과 끼를 기록하다

Romance and Challenge, Recording Passion and Talent of College Student

우리대학에는 전공 학과별로 학회가 개설되어 있었다. 각 학회는 학과별 학생들로 조직되며, 필요에 따라 대학별 연합학회를 구성할 수 있었다. 저마다 그 학과의 전공 특성을 살려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전공을 살린 전문적인 학회지를 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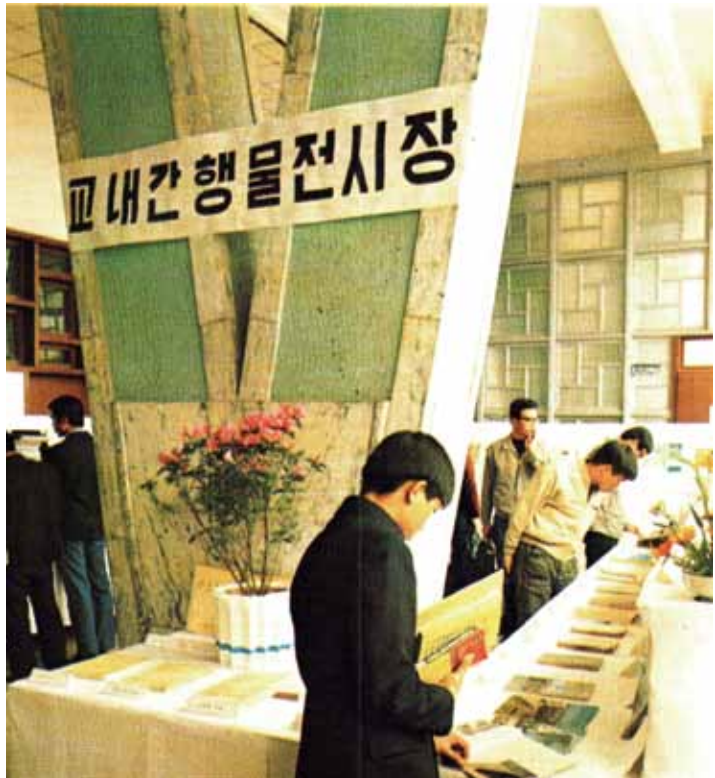
방학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서관은 언제나 공부하는 학생들로 가득하다. 특히나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밤늦게까지 초만원을 이루는 곳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도서 대출과 학습 공간만으로 기능했다면, 현재에는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거나 영상자료 등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영역이 넓어졌으며 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만남의 공간이기도 하다.

1963년 완공된 도서관은 꾸준히 학생수가 늘어남에 따라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었다.

1981년 박물관을 폐쇄하여 도서관을 확장하였고, 1989년 3월 4일 초현대식 시설의 상허기념도서관을 건립하여 연구와 학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 학회집 學會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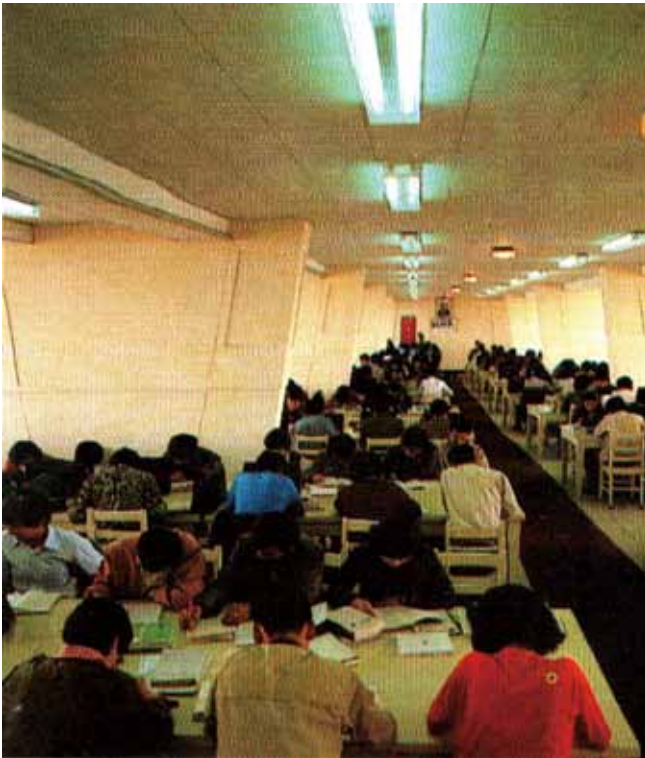


▲ 교내간행물 전시 1972

당시 중앙도서관(現 언어교육원)에서 개최된 교내간행물 전시에서 학생들이 교지, 학보, 학회집 등을 열람하고 있다.



▲ 건국대학교 중앙도서관 1963



▲ 현재 언어교육원 건물이 과거 도서관으로 쓰이던 모습 1976



▲ 면학의 기풍이 감도는 도서관 풍경



▲ 시험공부에 몰입하는 학생들 1996



▲ 불야성인 도서관, 건대신문 제179호 1964



▲ 창학 20주년 기념 학술강연회 1966



▲ 제3회 전국대학생학술토론회 1971



▲ 개교 32주년 기념 대학원 주관 학술경연회 1978



▲ 제11회 문리과대학 학술논문발표회 1982



▲ 고등학교 교사 대상 정보화 교육 2001

● 건대인의 자랑, 건국대의 영광!

Pride of Konkuk University Students! Honor of Konkuk University!

학교는 순수한 아마추어 정신에 입각하여 소질을 지닌 체육인을 발굴·양성하는 동시에, 일반 학생들의 교양을 높여 현대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963년 축구부 창단 이래 야구부(1972), 농구부(1967), 육상부(1966), 테니스부(1969), 골프부(1986)를 만들고, 메인스타디움(1969)과 이천 스포츠과학타운(2005) 등을 건립하여 엘리트 체육교육의 산실로 활용하고 있다.

축구부는 2002년 월드컵 4강의 주역들(황선홍, 유상철, 이영표 등)을 비롯하여 전국대학 연맹전 및 체육대회에서 여러 해 동안 우승을 하였다. 또한 육상부(마라톤 99회 우승), 농구부(준우승 6회), 테니스부(76회 우승), 야구부(우승·준우승 18회), 골프부(김병관·최나연·이보미 등 100승)에서도 다수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 문홍주 선수의 경기모습 1974

본교 출신 마라토너 문홍주 선수는 당시 출전한 동아마라톤대회에서 2시간 16분 15초로 한국 마라톤 신기록을 수립했다.

▲ 마라톤 우승 트로피



▲ 레슬링 경기 1959



▲ 장대높이뛰기 1958



▲ 유도부 선수들의 단체사진 1960



▲ 복싱 경기 1961



▲ 네트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서있는 여학생들 1964



▲ 배구 여학생 경기 1974



▲ 제6회 총장배쟁탈 단과대학 대항 체육대회 1972



▲ 전국대학야구연맹 춘계리그대회 (공동우승 한양대) 1973

당시 야구단이 창단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해에 첫 우승을 기록한 경기이다.



▲ 제27회 백호기쟁탈 전국대학야구대회 준우승 1973



▲ 제8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 우승 1974



▲ 제8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 우승기 1974



▲ 제5회 건국대 총장배쟁탈 전국고교축구대회 1975



▲ 춘계대학 야구대회 준우승 2002



▲ 추계대학 야구대회 우승 2003



▲ 전국대학테니스대회에서 우승한 테니스팀 1974



▲ 테니스대회 우승 납상식 2003



▲골프대회 우승 시상식 2000

본교 골프부는 1982년 서울캠퍼스 체육부에 남자팀으로 창단해 1994년 김종일 프로의 우승으로 100승 행진을 시작했으며 2004년 글로벌캠퍼스 골프지도전공으로 이관되면서 본격적으로 여자팀 중심으로 운영됐다.



▲골프부 세계 3대 투어 100승 달성 기념행사 2016

2016년 3월 13일 이보미가 일본여자골프투어 '요코하마 타이어 토너먼트 PRGR 레이디스 컵'에서 우승함으로써 창단 이후 34년 만에 출신 선수들의 통산 100승을 기록하며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 각종 스포츠 대회에서 받은 우승 트로피

축제의 깃발, 북적이는 캠퍼스

Festival Banners, Energetic Campus

축제는 보통 개교기념일인 5월 15일을 전후로 하여 3~4일간 열린다. 1962년 '건대제전'이라는 이름으로 축제가 시작되어, '건대축전', '일감호축전', '일감호대동제' 등으로 변화하였다. 1973년 가을부터는 성·신·의 예술제도 함께 기획되어 대학생활의 낭만을 대표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투자를 불태우는 축제 행사들은 해를 거듭하며 다양화되어 1971년도에는 30여종에 달하였다. 건대인이라면 누구나 축제 분위기에 들떠 북적이는 캠퍼스와 햇살에 반짝이는 일감호, 그 위에 떠 있는 보트 풍경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일감호 축전 외에도 단과대의 특성을 살린 이색 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축우제'는 축산대학의 전통 있는 행사로서 해마다 11월 추수감사제 행사를 겸하여 1961년부터 거행되었다. 축농산 문제 세미나, 영어응변대회, 학회 대항 체육대회, 바비큐 파티, 우유 마시기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축제를 기념하고 있다.



▲ 옛 운동장에서 벌어진 개교기념 축제 1966



▲ 축전 아치로 단장한 본교 교문 1977



▲ 젊음을 발산하는 카니발 황소제전의 불꽃축제 1977



▲ 제 1회 건대제전을 알리는 아치형 조형물 1962



▲ 가장행렬을 위해 준비중인 학생들 1964



▲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킨 이국적인 가장행렬 1964



▲ 남녀 짝을 지어 포크댄스를 추는 학생들 1964



▲ 흥겨운 국악을 연주중인 농악대 1964



◀ 축제 관련 팸플릿 1970



▲ 일감호 축전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 풍경 1971



▲ 일감호 축전 페넨트



▲ 축우제 안내책자

‘축우제’는 축산대(現동물생명과학대)의 전통과 함께해 온 특색 있는 축제이다. 현재까지도 매년 가을에 축우제가 열리고 있다.



▲ 축우제(축산대학 주최) 페넨트



▲ 일감호대동제 팸플렛 1985



▲ 제1회 축우제에 참석한 유석창 박사 1964



▲ 제16회 일감호 축전을 둘러보는 학교 임원들 1986





낙시대회. 월척이 올라오긴 했지만...

우유 마시기 대회

2병 빨리 마시기 1등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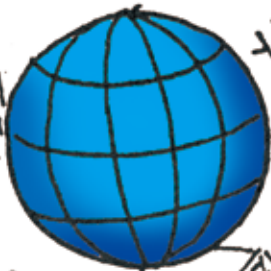
청심대

각종 전회와 행사가 겹쳐 인파의 바깥이 끊이지 않아



미들살기 대회 참가생들이 길을 따라 예뻐한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가. 연동 전시장 인기였죠

날고 학생회의 연동 전시장 꽃밭이 아니고 인기였죠



개교 30주년 기념 야외 축전

연극공연 각종 강연회. 옹현대회 등으로 열을 올렸던 장소.

고교 백일장 전국에서 300여명 참가성향.

실내 체육관 목동의밤. 오월의 찬대 방동제 등 추억상의 학생이 드나든곳

날씨 탓으로 재미를 못 봤다고 투덜.

축전기념 곡예 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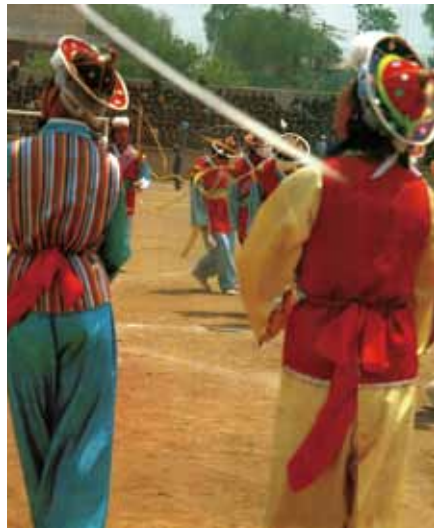
50여종에 행사내용이 많은 야외 축전

기념식날. 가장 축전 분위기를 고조시켰던 가장 행렬. 축전중 이곳 대운동장에서 눈물과 웃음, 아우성의 연속이었다고...

가메라

토인무





장안벌의 함성, 전세계를 누비다

Roar of Janganbeol, Reaching out to the Whole World

교수와 학생들을 세계 유수의 대학에 교류시키며 연구활동을 국외로 확장시키려는 계획은 오래 전부터 전개되어 왔다. 그 중 해외 대학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교류는 1969년 5월 15일 중국 대북의 문화대학을 시작으로, 1970년대 4개 대학, 1980년대 7개 대학, 1990년대 22개 대학, 현재 51개국 325개 대학 및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2003년부터 자매대학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alifornia State University, Fresno)와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생들을 파견하고, 양교의 규정 및 요건을 충족시킨 학생들에게 각 대학의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교류학점인정, 어학연수, 해외탐방, 국제인턴십 프로그램 등도 있으며, 학술 및 연구 분야 이외에도 각종 체육 및 문화예술 행사를 기획하여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 일본대학과의 교류협정 체결 1999



▲ 미국 교환학생 1기 발대식 2001



▲ 또! 세계속의 건국 1975

1970년대 점점 확대되는 본교의 국제교류활동이 표현되었다. 1975년 11월 5일자 건대신문 489호에 수록된 만평이다.



▲ 노벨상 수상자 안핀센 박사 초청 강연 1988

안핀센 박사는 미국의 생화학자로 하버드대 의과대학 및 존스홉킨스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1972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이다. 1988년 5월 14일 개교 42주년을 기념하여 특별연사로 초청된 안핀센 박사의 특강을 통해 당시 관련 전공생들은 학문적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 더윈스키 미국 하원의원 명예법학박사학위 수여식 1975



▲ 미국 일리노이대학과의 교류협정식 2002



▲ 교류활동 페넌트



▲ 감사패 感謝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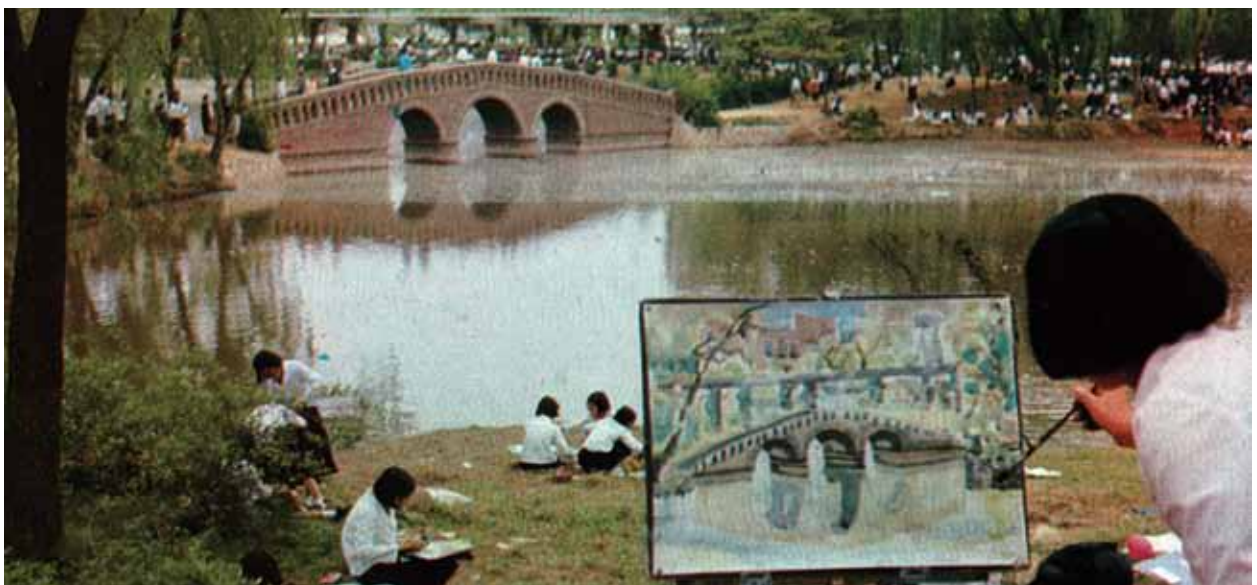
해외대학과의 자매결연, 기업 및 민간단체 등 학교의 적극적인 대외협력과 교류협력 활동을 보여주는 감사패이다.



▲ 제1회 총장기쟁탈 서울시 남녀교육경연대회 1972



▲ 대학미전 입상작 전시 1972



▲ 제1회 전국여중고교 미술실기대회 1975



▲ 제1회 총장배쟁탈 전국고교축구대회 1971



▲ 제3회 총장배쟁탈 전국고교축구대회 1973



▲ 거스 히딩크 감독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2002

2002한일월드컵에서 활약한 동문 선수 환영식에서 황선홍(경제87), 유상철(중문90), 이영표(정의96), 현영민(지리98) 선수 등이 순금 100돈으로 만든 황소상을 증정받았다. 2005년 개장식을 가진 이천 스포츠과학타운에는 이들 선수들의 이름을 딴 '황선홍 스타디움', '유상철 그라운드' 등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 제5회 건국대 총장배쟁탈 전국고교축구대회 1975



▲ 본교 출신 국가대표 선수 환영식 2002



◀ 제3회 신문·교지 콘테스트 안내책자 1973



▲ 제7회 전국남녀고교 신문·교지콘테스트 시상식 1977



▲ 제19회 전국 대학생 능총문제토론대회 1978

졸업, 또 하나의 우문천답(愚問賢答)을 찾아서

Graduation, Looking for Another Wise Answer to a Silly Question

졸업이란 대학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연속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과거에는 대학 졸업 후 직업을 얻고 사회활동을 보장받기 쉬웠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학교에서는 진로적성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자아탐색 및 취업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학생들의 진로선택을 돕고 있다.

한편 우리 대학은 1952년 정치대학 1회 졸업생을 시작으로 여자초급대학 1회(1964), 행정대학 1회(1969), 농공대학 1회(1968) 등 지금까지 20만여 명에 달하는 인재를 배출해왔다. 동문들은 각계각층에서 사회의 주역으로서, 또한 든든한 선배가 되어 후배들을 이끌고 있다. 2015학년도에는 약 4,000여명의 학생들이 졸업장을 받았다.



피문을
나서는
졸업생들의
앞날에
성광있기를!!



▲ 개교2주년 기념 및 제1회 졸업식 1951

“조국을 빛내자 정치학도여”, “정학도의 임무를 다하자”
“진리는 학도의 무기”, “군센시조” 등의 현수막이 학생들 뒤에 내걸려있다.



▲ 졸업장 수여장면 1959



▲ 1975학년도 학위수여식
및 팸플렛 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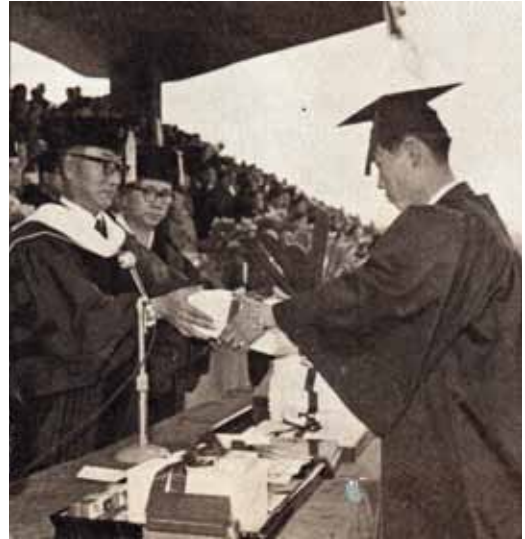
▲ 2015학년도 학위수여식



▲ 대학생들의 유종의 미, 학위수여식 2015



▲ 1960년대 졸업기념 단체사진



▲ 1971학년도 학위수여식 및 졸업식



▲ 친구와 가족과 함께 기념하는 졸업! 1997



▲ 2015학년도 ROTC 졸업식 모습

대한의 건아!! 호국인제가 되자!



▲ 남자친구와 함께 찍는 졸업사진 2015

졸업사진은 “남자친구”와 함께 찍는게 추억이지!



▲ 2015학년도 졸업식 모습

우리도 이제 꽃다운 나이 사회로!! “아자 아자”.



▲ 졸업앨범

1950~1960년대 정치대학, 농공대학, 여자초급대학의 졸업앨범이다.



▲ 정치대학 제1회 졸업생_유덕산 1951



▲ 제1회 정치대학 졸업증서 1951 유덕산 기증



▲ 사학과 졸업생_박은경 2013



▲ 2013학년도 졸업 학위증 사학과 09학번 졸업생 박은경

건국을 빛낸 스포츠 스타



▲ 축구선수 황선홍 유니폼
경제학과 87학번



▲ 축구선수 유상철 유니폼
중어중문학과 90학번



▲ 축구선수 이영표 유니폼
정치외교학과 87학번



▲ 축구선수 현영민 유니폼
지리학과 98학번



◀ 테니스선수 이형택 싸인볼
영어영문학과 94학번



◀ 야구선수 이종범 싸인볼
경영학과 89학번



▲ 동창회 명부 1966

1966년도 졸업명부와 1950-1960년대 정치대학 동창회의 명부이다.



▲ 언론동문회 회원 명부 1970년대

1974년부터 1977년까지 본교 출신 언론인들의 모임인 언론동문회의 회원 명단이다.

▲ 건국대 동문회의 모임인 건국인의 밤 행사 모습 1986





건물 자체가 문화재, 박물관

Building is Cultural Asset by Itself, the Museum

대학 박물관은 조상의 얼이 깃든 역사 유물과 학교역사 자료를 통해 학생 및 교직원, 동문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고취하고 학교의 발자취를 이해시키는 대학의 기본적인 문화시설이라 할 수 있다.

1963년 3월에 설립된 우리 대학 박물관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기획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일반인 대상 정기 강좌인 박물관대학 인문학 강좌와 문화유적답사, 문화재청 주관 생생문화재 사업,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역사탐방 교육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춘 교육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평생 학습의 장으로서 지역과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설립자인 상허 유석창 박사의 유품과 학교 역사자료를 함께 전시하며 학생과 교직원, 동문들의 애교심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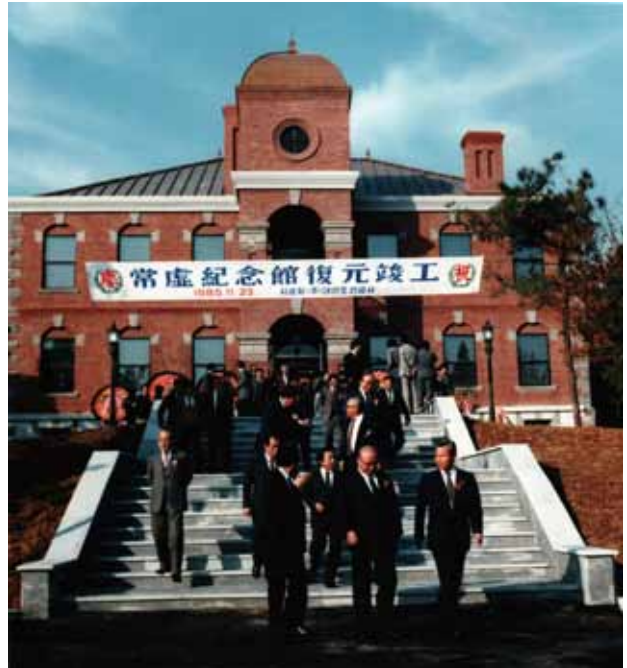


▲ 박물관 전시실 풍경 1960

옛 도서관(현재 언어교육원) 건물을 박물관이 함께 사용하며, 1985년 상허기념박물관이 준공되기 전 까지 이곳에서 수장고 기능 및 전시 업무를 병행하였다. 당시 박물관 전시실의 모습이다.



▲ 전시해설을 들으며 유물을 관찰하는 학생들 1975



▲ 상허기념박물관 준공식 1985

서울캠퍼스에 복원된 옛 서북학회 회관 건물

낙원동 서북학회 회관 건물은 우리대학의 발상지로, 본교가 장안동캠퍼스로 이전한 이후에도 이부대학 교사로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건축물 이전이 결정되어 1977년 해체되었다. 해체 후 주요 건축물들은 따로 보관되어 오다가 1985년 복원공사가 시작되며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 복원에는 벽돌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체 당시 보관한 낙원동 교사의 자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2003년 6월 30일 대한민국 등록문화재 제53호 지정되었다.



▲ 상허기념박물관 준공 기념 전시를 둘러보는 학교 관계자들 1985



▲ 박물관 문화강좌 1기 수료식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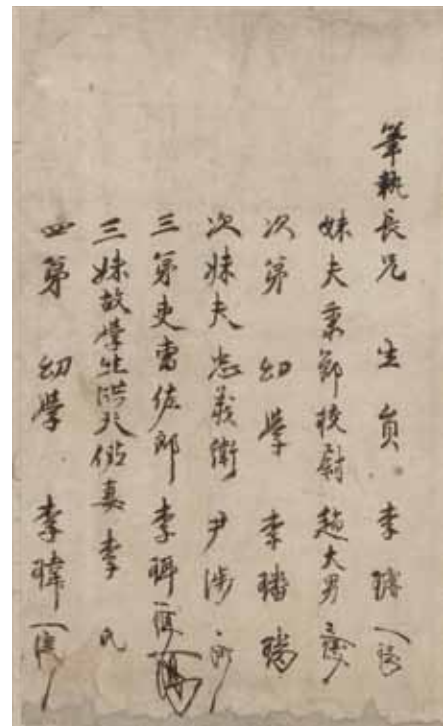
본교 박물관에서는 대학생과 일반인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박물관 문화강좌> 및 <유적답사>를 실시하고 있다.



▲ 울곡 이이 선생가 분재기 栗谷先生家分財記 1566년(명종 21), 보물 제477호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학자 울곡 이이 선생(1536-1584)의 형제 자매들이 1566년 아버지 이원수(李元秀)의 사후(死後)에 모여 유산을 분배하고 기록한 문서이다. 시집간 자매를 포함한 4남 3녀가 재산을 균등히 분배한 점이 흥미로우며, 조선 전기의 사회 제도 및 경제제도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 받아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조상에 대한 제사(祭祀), 묘소의 수호와 관리를 위하여 봉사조(封祀條), 묘전(墓田), 묘지기(墓直)의 세 항목으로 구분하여 가옥 및 토지와 노비를 배정하였다. 다음으로 장자 이선을 비롯한 7남매의 몫을 태어난 순서대로 고르게 분재하였으며, 서모(庶母) 권씨의 몫까지 나누어 주었다.

문서는 만행인 이선이 직접 작성하였고, 문서 말미에는 7남매 모두 분재 내용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고 수결을 기재했다. 울곡 이이 선생가 분재기는 『경국대전』에 규정된 내용에 의거하여 승중자(承重子)에게 5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더해주고 나머지 재산은 여러 자녀가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는 조선 전기의 재산 상속의 관행을 살펴 볼 수 있는 사례이다.





▲ 군산이우도 群山二友圖 1593년(선조 26)

임진왜란 때 군산(현재 고군산도)으로 피난한 조영(趙嶸)이 김주(金鑣)와 만나 교류하면서 서로의 우정을 기리기 위해 제작한 화첩이다. 김주가 시를 짓고 조영이 그림을 그려 1593년 군산이우도첩을 완성했다.

그림 속 비스듬한 대각선으로 길게 자라난 소나무와 진한 먹으로 표현된 소나무 옹이, 먹색의 대비가 강한 바위 등의 표현은 조선 중기 화단에 큰 영향을 준 절파(浙派)화풍의 특징을 보여준다. 전쟁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문인의 고아한 품격을 잃지 않으려는 선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렸으며, 문인화가 조영의 유일한 작품이자 현전하는 회화 작품이 드문 조선중기의 그림이라는 점에서 미술사적 가치가 높다.



▲ 조영과 김주가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모습



▲ 도봉서원도 道峰書院圖 조선 후기

조선후기의 화가 심사정(沈師正)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작품이다. 도봉산 계곡에 있던 도봉서원의 실경을 그린 것으로, 산과 계곡으로 형성된 원형의 공간 안에 서원이 포근하게 감싸인 듯 배치되어 있다. 화면구성과 먹빛의 강한 대비, 담체의 투명한 효과, 미점(米點)과 스케치풍의 수지법(樹枝法) 등에서 조선후기에 크게 유행한 정선(鄭敼)의 진경산수화풍 특색이 엿보인다. 따라서 이 그림은 정선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남종화법으로 이를 변화시킨 심사정의 화풍으로 볼 수 있다.

그림의 주제인 도봉서원은 1573년(선조 6)에 건립되었고 송시열 등 조선의 주요 성리학자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서원이다. 화가는 조선후기 진경산수화의 특색을 잘 살려 표현하였으며, 18세기 즈음 도봉서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의의도 있다.



▲ 월하취생도 月下吹笙圖 조선후기

조선후기 화가이자 김홍도의 아들인 김양기(金良驥)의 작품이다. 월하취생도는 선비가 파초 잎을 깔고 앉아 술 한 병에 붓을 희롱하다 다시 생활에 마음을 실어보는 모습을 간결하고 정감 있게 그려낸 작품이다. 김양기의 화풍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지만,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매화 그림으로 유명한 조희룡(趙熙龍)과 교유관계를 맺었던 사실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다.



▲ 무이구곡도 武夷九曲圖 조선후기

조선후기 명고(明考) 이방운(李昉運)의 그림이다. 이방운은 산수화 및 인물화에 뛰어났으며, 심사정과 강세황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국적 남종화풍을 계승한 화가이다. 무이구곡은 주자(朱子)가 살았던 복건성 무이산의 경치를 그린 것으로, 조선후기 성리학자들이 이상향으로 여기던 이미지중 하나이다. 이 무이구곡도는 한국화 된 남종화풍의 특색과 짧게 굴곡진 윤곽선, 소략한 형태, 담백한 분위기 등을 표현하는 이방운의 개성적인 화풍이 잘 표현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풍각기 風角器 1757년(영조 33)

조선후기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측정한 기구이다. 전서체로 풍각기라는 명칭과 '건륭정축(乾隆丁丑)'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영조 재위기인 1757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이 휴대용으로 사용하던 관측기구로서 국내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유물로서 큰 가치가 있다.



▶ 해시계 日晷 조선후기

해시계는 지구의 자전에 의하여 물체의 그림자가 이동하는 것으로부터 시간의 경과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평면으로 된 작은 나무판의 앞뒤에 24절기와 12방향이 표시되어 있다. 나무판의 끝에는 시간을 측정하는 기둥을 꽂을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다.





▲ 떡살 餅型 조선후기

조선후기의 백자 떡살로, 연화문 등 길상의 의미를 담은 문양들이 새겨져 있다. 제사나 명절 차례에 사용할 떡을 빻을 때 도장처럼 사용해 무늬를 내는데 사용되었다. 우리 박물관에 소장된 떡살은 총 300여점으로, 본교 동문인 홍철화 선생님이 평생에 걸쳐 수집한 떡살을 박물관에 기증하셨다.



▲ 도정궁 경원당 都正宮 慶原堂 19세기,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9호

이 건물은 사직동에 있던 덕흥대원군 사당을 지키는 후손의 살림집 중 하나였다. 1979년 당시 소유주 정재문이 건국대학교에 기증하면서 지금 위치로 옮겨졌다. 선조의 아버지인 덕흥대원군의 제사를 지내던 후손은 도정이란 벼슬을 세습했으므로 도정궁이라 불리었다. 1913년 화재로 도정궁에 딸린 건물 대부분을 잃자 1914년을 전후하여 재건되었다.

현재 경원당은 이때 만들어진 건물로 보이나 1920년대에 지었다는 의견도 있다.

건물 구조는 ㄱ자형인데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방을 두고, 큰방 옆에 낸 부엌 앞으로 마루와 방, 누마루를 뒀다.

조선시대 건축 기법을 간직하면서도 돌출된 현관, 유리문 같은 처리는 근대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전하면서 내부를 다소 고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전체모습은 잘 남아 있는 편이다.



◀ 고려시대 5층 석탑 고려시대

고려시대의 석탑으로, 비록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의 탑과 같은 세련된 아름다움은 없으나, 고려시대 특유의 험차고 질박한 멋을 간직하고 있다. 원래 군산의 폐사된 절터에 있던 것을 일제시기에 한 일본인이 군산의 사택(私宅) 뜰에 옮겨 놓았다. 당시 탑신(塔身)의 한 층과, 탑의 상륜부(上輪部)가 소실되어 본래 5층이었던 탑이 현재는 4층만이 남아있고, 상륜부는 1970년대에 다시 만들어졌다. 이 석탑은 일본으로 반출될 위기에 처했었지만, 본교 동문인 정삼태 선생님이 사재를 털어 구입하여 본교 박물관에 기증하셨다. 한 인물의 뜻있는 행동으로 소중한 우리 문화재의 해외 반출을 막은 귀중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박물관 전경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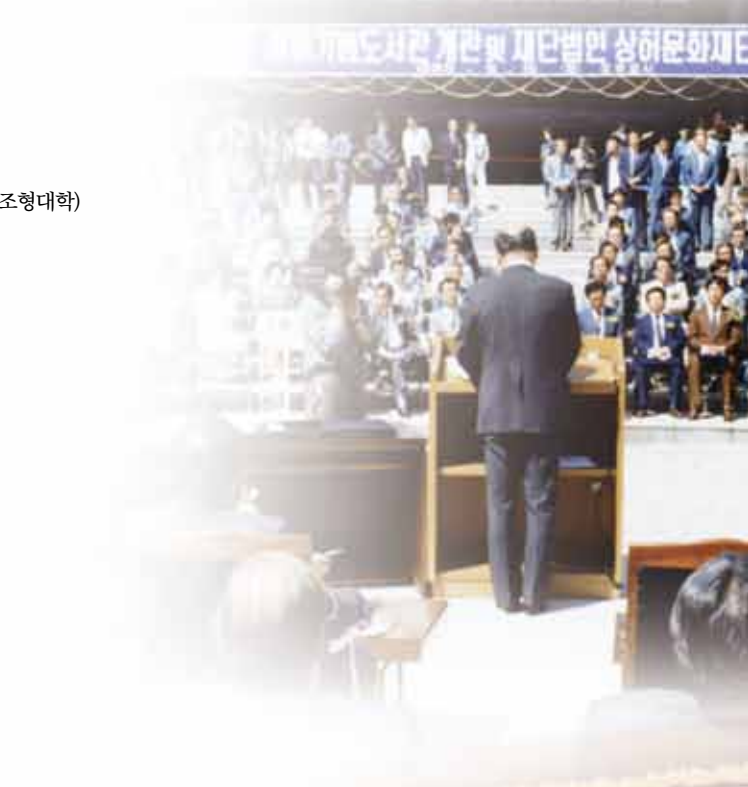


연표로 보는 건국의 역사

- 1931. 05. 12. 사회영 중앙실비진료원 창립, 보건시보 창간
- 1931. 사회영 중앙진료원을 사회영 민중병원으로 개칭
- 1946. 5. 15. 조선정치학관으로 개교
- 1948. 5. 15. 재단법인 조선정치학원, 조선정치대학관 설립 인가
- 1949. 9. 9. 재단법인 정치학원 및 정치대학 설립 인가
- 1949. 11. 11. 학교법인 유석창 이사장 취임
- 1951. 9. 9. 6·25동안 중 부산시 서대신동에 정치대학 임시사무소 설치 개강
- 1951. 11. 12. 학교법인 신태수 이사장 취임
- 1955. 3. 29. 제2부(야간) 설치 인가
- 1956. 10.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모진동 신축교사로 대학(주간) 이전
- 1959. 2. 26. 종합대학 건국대학교 설립 인가
- 1959. 3. 31. 초대 총장에 유석창 박사 취임
- 1961. 6. 1. 제113 학생군사훈련단 창설
- 1961. 11. 8. 학교법인 유석창 이사장 취임
- 1962. 1. 15. 제2대 총장 정대위 박사 취임
- 1962. 2. 27. 건국대학교 병설 지역사회개발 초급대학 설립 인가
- 1963. 3. 1. 박물관 설립
- 1963. 7. 20. 중앙도서관 건립
- 1963. 12. 16. 농림대학 신설 인가
- 1964. 1. 21. 여자초급대학 신설 인가
- 1967. 1. 5. 행정대학원 설립 인가
- 1967. 12. 31. 서울 건국중학교 설립
- 1968. 3. 1. 행정문제연구 및 한국응용사회과학연구소 설치
- 1968. 5. 1. 교육연구소, 한국축산경영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설치
- 1968. 5. 10. 한국농업문제종합연구소 설치
- 1968. 11. 5. 제4대 총장 문희석 박사 취임
- 1969. 6. 16. 제113 학생군사교육단으로 개편
- 1969. 11. 12. 종합운동장 건립
- 1970. 7. 7. 생활문화연구소 설치
- 1971. 1. 6. 제5대 총장 광종원 박사 취임
- 1971. 5. 15. 황소상 건립
- 1972. 1. 1. 설립자 상허 유석창 박사 서거(사회장)
- 1972. 1. 19. 학교법인 유일윤 이사장 취임
- 1972. 1. 25. 실내체육관 건립
- 1972. 3. 1. 통일문제연구소 설치
- 1972. 11. 1. 산업기술연구소, 농업자원개발연구소 설치
- 1973. 3. 1. 응용과학연구소 설치
- 1973. 12. 28. 사범대학 설립 인가
- 1974. 1. 1. 설립자 상허 유석창 박사 동상 건립
- 1975. 1. 15. 문교부 대학교육 개선 실험대학 선정
- 1976. 8. 15. 본관 건물 건립
- 1978. 1. 5. 학교법인 건국대학원 이사장 유일윤 박사 서거(학원장)
- 1978. 1. 17. 학교법인 유승윤 이사장 취임
- 1978. 10. 7. 이부대학 공학부(5개 학과) 증설 인가
- 1978. 12. 30. 교육대학원 설립 인가
- 1979. 5. 15. 학생회관 건립
- 1979. 12. 5. 산업대학원 설립 인가
- 1980. 1. 5. 충청북도 충주시에 충주대학(분교) 설립 인가
- 1980. 2. 4.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설립 인가

- 1980. 3. 29. 제8대 총장 조일문 박사 취임
- 1981. 2. 26.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부속고등학교 교사 건립
- 1981. 3. 1. 낙원동 이주대학이부대학 본교로 흡수 통합
- 1982. 2. 10. 교양학관, 성관 및 충주대학(분교) 인문사회학관 착공
- 1982. 3. 6. 제1136 학생군사교육단 충주분단 인가
- 1982. 6. 1. 경제경영연구소 설치
- 1982. 6. 9. 학교법인 김계옥 이사장 취임
- 1982. 8. 25. 충주대학(분교) 인문사회학관 건립(현 사회과학대학)
- 1982. 10. 9. 교양학관 및 성관 건립
- 1983. 1. 설치 전자계산소 발족
- 1983. 3. 1. 제9대 총장 권영찬 박사 취임
- 1983. 10. 29. 경영대학원 설립 인가
- 1983. 12. 2. 학교법인 건국대학원 이사장 김계옥 여사 서거(학원장)
- 1983. 12. 21. 학교법인 유승운 이사장 취임
- 1984. 2. 21. 충주캠퍼스 자연과학관 건립
- 1984. 10. 18. 선수생활관 건립
- 1984. 11. 27. 농축개발대학원 설립 인가
- 1984. 12. 15. 충주캠퍼스 학생복지회관 건립(현 생활관)
- 1985. 유석창 박사, 근대사학 1백주년1백주년 기념, 사학설립자 13인중 한 분으로 추문
- 1985. 9. 6. 충주캠퍼스 교문 건립
- 1985. 10. 30. 충주캠퍼스 자연과학대학 의예과 신설 인가
- 1985. 11. 31. 상허기념박물관 건립
- 1986. 8. 12. 사회과학관 건립
- 1986. 11. 6. 충주캠퍼스 의과대학 설립 인가
- 1986. 12. 20. 충주캠퍼스 의과대학(의예과) 및 자연과학관 건립(현 디자인조형대학)
- 1987. 유석창 박사, 근대교육사상가 30인 중 한 분으로 선정
- 1987. 5. 15. 충주캠퍼스 중원도서관 건립
- 1987. 11. 9. 충주캠퍼스 지역개발대학원 설립 인가
- 1988. 2. 29.** 일우현(국가고시관) 건립
- 1988. 8. 10. 제11대 총장 김용한 박사 취임
- 1988. 8. 20. 충주캠퍼스 의과대학 교사 건립
- 1988. 12. 9. 생활문화대학 공예관 이전 건립
- 1989. 3. 4. 상허기념도서관상허기념도서관 건립
- 1989. 3. 17. 재단법인 상허문화재단 설치, 한민족문화연구원 개원
- 1989. 3. 31. 강릉연수원 건립
- 1989. 5. 11. 재단법인 상허문화재단 설립
- 1989. 7. 30. 충주캠퍼스 학생회관 건립
- 1989. 12. 8. 농과대학 온실 이전 건립, 건국종합식품 사업장 개업
- 1990. 5. 19. 괴산연습림 실습실 및 관리사무소 건립
- 1990. 7. 27. 학교법인 건국대학원을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로 명칭 변경
- 1990. 8. 17. 충주 소재 의료법인 신라병원 이사장에 학교법인 유승운 이사장 취임
- 1990. 9. 15. 농과대학 광주연습림 여학생 숙소 건립
- 1990. 10.24. 어학연수원 개원
- 1991. 3. 1. 제12대 총장 안용교 박사 취임
- 1991. 5. 13. 정문(남측) 조형물 건립
- 1991. 5. 15. 노천극장 건립
- 1991. 8. 20. 공과대학 증축
- 1992. 4. 27. 충주캠퍼스 모시래학사 여학생 기숙사 건립
- 1993. 1. 25. 농과대학 설치 식품개발사회교육원 설치
- 1993. 2. 1. 제13대 총장 정호권 박사 취임
- 1993. 5. 1. 학교법인 현승중 이사장 취임
- 1993. 10. 20. 충주캠퍼스 종합강의동 건립
- 1994. 9. 1. 제14대 총장 윤형섭 박사 취임

常虛文化財團發起人會
 韓國民族文化研究院開院 祝



- 1994. 10. 13. 충주캠퍼스 전자계산소 설치
- 1995. 2. 7. 국제협력센터 신설
- 1995. 5. 15. 교책연구원(산업기술연구원, 생명과학연구원) 설치
- 1996. 1. 29. 신관기숙사 건립
- 1996. 3. 1. 교책연구원(한국문제연구원) 설치
- 1996. 3. 14. 충주캠퍼스 중원지역발전연구원 설치
- 1996. 5. 14. 건축대학원 건립
- 1996. 7. 11. 건국대학교 설치 사회교육원,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설치 사회교육원 신설
- 1997. 3. 전자계산소 정보통신원으로 개편
- 1997. 12. 30. 과학관 건립

- 1998. 7. 9.** 충주캠퍼스 사회교육원 건립
- 1998. 9. 1. 제15대 총장 맹원재 박사 취임
- 1999. 7. 12. 학교법인 이종근 이사장 취임
- 1999. 7. 23. 충주캠퍼스 행정관 건립
- 1999. 8. 25. 충주캠퍼스 건국체육관 건립
- 1999. 10. 5. 충주캠퍼스 중앙광장 건립
- 2000. 4. 30. 새천년관, 문과대학 교수연구동 준공
- 2000. 8. 16. 공과대학 중앙비 실험동 신축
- 2000. 12. 1. 수의과학연구소, 서울유림연구소 부설
- 2001. 1. 26. 학교법인 김경희 이사장 취임
- 2002. 4. 30. 수의과대학 및 부속동물병원 준공
- 2002. 9. 1. 제16대 총장 정길생 박사 취임
- 2003. 2. 4. 국제학사 준공
- 2003. 6. 5. 서울캠퍼스 외국어교육원을 언어교육원으로 개명
- 2003. 11. 28. 생명과학관 신축
- 2004. 4. 13. 제2 학생회관 준공
- 2005. 2. 28. 산학협동관 준공
- 2005. 5. 25. 건국대학교병원 준공
- 2005. 9. 12. 이천 스포츠과학타운 오픈
- 2005. 9. 29. 건국대학교병원 개원
- 2006. 1. 25. 수의과대학 및 부속동물병원 증축
- 2006. 5. 17. 법과대학 증축
- 2006. 6. 14.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2006. 8. 17. 상허연구관 준공, 민자기숙사 KU:L House 준공
- 2006. 9. 1. 제17대 총장 오명 박사 취임

- 2008. 3. 1.** 교책연구원 신설: 인문학연구원
- 2008. 3. 31. 제2 생명과학관 준공
- 2008. 8. 10. 외국인 전용숙소 글로벌홀 개관
- 2008. 10. 2. 입학정보관 개관
- 2010. 2차 민자기숙사 신축
- 2010. 3. 23. 통일인문학연구단 출범
- 2010. 4. 27. 건국대 인터넷 방송국(KUBB) 개국
- 2010. 9. 1. 제18대 총장 김진규 박사 취임
- 2011. 10. 21. 충주캠퍼스 대외협력처 한국어교육센터 신설
- 2011. 4. 8. '충주캠퍼스' → 'GLOCAL(글로벌)캠퍼스'로
- 2011. 8. 23. i-SMART 창업보육센터 신설
- 2012. 9. 1. 제19대 총장 송희영 박사 취임
- 2012. 9. 18. GLOCAL캠퍼스 '글로벌 소통·통섭 교육원' 신설
- 2012. GLOCAL캠퍼스 창업보육센터 신축
- 2012. 3. 1. 글로벌 소통·통섭 교육원 신설
- 2015. 2. 25. 해봉부동산학관 건립
- 2016. 신공학관 건립



총괄 한상도
기획 박제광
진행 김이브, 박은경, 이은영
사진 ㈜디앤지예와가
디자인 ㈜디앤지예와가
인쇄 영기획

발행처 건국대학교 박물관
발행일 2016.05.11

건국대학교 박물관
05029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Tel. 02.450.3882

본 도록에 실린 글과 도판은 건국대학교 박물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pyright ©2016. Konkuk University Museum. All rights reserved.

